

‘키코 배상안’ 반기 듣 은행들…난감해진 윤석현 10



기아차 ‘텔루라이드’ 美 7만대 돌풍 13

\*투자 전 설명 청취 \*원금손실 유의

코스피(6일 전주 대비)

2040.22(+53.21P)

코스닥

642.72(+31.99P)

환율(달러당 원화)

1192.30(-21.4원)

금리(국고체 3년물)

1.078%(-0.026%)P)

## 출발은 장밋빛 청사진 개발사업 10년째 표류

### 스페셜 e리포트

현인·구룡마을, 동인천 재정비…  
주민 갈등에 지자체도 방관  
10년 이상 미개발 1.5억 m<sup>2</sup>  
무리한 추진에 주민피해 급증

2009년 서울시는 서초구 내곡동 현인마을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했다. 일대 13만2379m<sup>2</sup>를 재개발해 연립주택 216가구, 단독주택 45가구로 이뤄진 고급 주거 단지를 짓는다는 구상이었다. 강남 도심과 가까운 데다 청계산 등 녹지도 풍부해 기대가 컸다. ▶관련기사 3면

하지만 그해부터 본격화한 글로벌 금융 위기가 개발사업의 발목을 잡았다. 시행사였던 동양건설산업과 삼부토건이 줄줄이 쓰러지면서 10년 넘게 사업이 표류했다. 개발업자가 현인마을에서 뉴스데이(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을 하겠다며 최순실 측에 뇌물을 건넨 일도 드러났다. 현인마을에서 13년째 가구점을 하는 A 씨는 “차라리 보상을 받고 가게를 정리할 수 있었으면 마음이 편했을 텐데… 이전 벼려진 동네가 됐다”고 푸념했다.

지난해 미래에셋대우를 중심으로 개발을 재추진하고 있지만 갈등은 아직 ‘현재 진행형’이다. 시행대행사인 현인타운개발과 도시개발사업 조합이 사업 주도권을 놓고 맞서 있어서다. 각자 상대방이 권리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사업에 끼어들고 있다며 대립하고 있다.

지자체가 갈등을 적극적으로 중재해야 한다는 데는 양측이 똑같은 목소리를 낸다. 사업을 인가했던 지자체에서 이해관계를 정리했으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는 주장이다. 서초구 관계자는 “조합 내부에 문제가 있어 실시계획 인기에 필요한 보완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구 차원에서 할 수 있

#### 지구 지정 후 10년 넘게 착공 못한 수도권 도시개발사업

서울	- 현인마을	- 구룡마을
경기		
- 수원 영화문화관광구역		
- 용인 이동 송전구역·역삼구역		
- 평택 동삭·세교구역		
- 안산 회랑역세권구역		
인천		
- 동인천역 재정비촉진사업 1구역		
- 송도 대우자동차판매 부지 구역		

는 건 제출 독려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인마을처럼 장기간 표류하는 개발사업이 늘고 있다. 장밋빛 청사진을 내걸고 개발을 추진했지만, 사업성 부족으로 휘청인 경우가 대다수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방관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다. 개발은 커녕 대안도 마련하지도 못한 채 지역은 방치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지구 지정 후 10년 넘게 준공하지 못한 도시개발구역과 택지개발사업지구는 2018년 말 기준 1억 4526만m<sup>2</sup>에 이른다. 이 가운데 입주를 시작하고도 세부시설 구축이 늦어져 준공을 못 하는 곳도 있지만 아예 첫 삽도 뜨지 못한 채 방치된 곳도 적잖다. 수도권에서만 현인마을을 포함해 서울 구룡마을, 인천 동인천역 재정비촉진사업 1구역·송도 대우자동차판매 부지구역, 경기 수원시 영화문화관광구역, 용인시 이동 송전구역·역삼구역, 평택시 동삭·세교구역, 안산시 회랑역세권 도시개발구역 등이 착공도 못하고 있다.

경기도 한 지자체의 도시개발사업 담당자는 “애초 타당성 조사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끌고 나가기 힘들다”며 “토지 가치도 제대로 평가가 안 된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다 분양가가 올라가고 사업성이 떨어지는 일이 많다”고 말했다. 인천시 도시개발사업 담당자는 “개발 규모가 클수록 주민 갈등이 많고 사업도 늦어진다”며 “갈등 해소가 가장 중요하지만 지자체는 자문맡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4면

앞서 롯데케미칼은 올해 1월 1일 롯데첨단소재를 흡수 합병하며 기존의 범용화학 제품 중심에서 고부가 스페셜티 사업까지 포트폴리오를 확장하는 동시에 원료부터 최종 제품까지 통합 생산·관리체계를 구축했다.

이미 다른 건자재 업체들은 개별 브랜드를 통합한 브랜드를 선보이며 마케팅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LG하우시스는 LG화학에서 분사하기 이전인 2006년 업계 최초로 바닥재, 벽지, 창호재 등 건축장식재의 통합 브랜드인 지인(Z:IN)을 도입해 본격적으로 브랜드 자산 구축에 나선 바 있다. 최근엔 통합 브랜드를 ‘LG 지인(LG Z:IN)’으로 변경하며 B2C 시장을 적극 공략 중이다. ▶관련기사 2·4·5·8·9·10·12·15·16면

김유진 기자 eugene@



“비자효력 정지 전에 일본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로 명목으로 취한 일본 정부의 ‘한국인 입국 제한 조치’ 시행을 하루 앞둔 8일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출국장 일본행 카운터에서 승객들이 탑승 수속을 밟고 있다. 정부는 일본 정부에 유감을 밝히며 상응 조치로 “9일 0시부터 일본에 대한 비자 면제 조치와 이미 발급된 비자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신태현 기자 holjjak@

〈6월까지 매출 피해 예상액〉

## 항공업계 셧다운 위기…코로나 피해 최소 5兆

2월 넷째주 국제선 여객수 66%↓

아시아나 등 한일노선 잠정 중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항공업계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일본을 포함한 대부분의 하늘길이 끊겼고, 남은 노선의 여객 수요도 급감하고 있다. 6월까지 최소 5조 원의 매출 피해가 예상된다. ▶관련기사 4면

8일 한국항공협회에 따르면 2월 넷째주 국제선 여객 수는 65만2626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65.8% 감소했다. 중국 노선 여객 수는 전년 동기 대비 85.2% 줄었고 일본과 동남아는 각각 70.6%, 62.1% 감소했다. 미주와 유럽도 전년 동기 대비 11.8%, 29.8% 각각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국적 항공사의 2월 넷째주 국제선

운송실적을 기준으로 피해 규모를 산출한 결과 올해 6월까지 최소 5조875억 원의 매출 피해가 예상됐다.

지난해 국제선 월 평균 여객 수는 504만 967명이었다. 항공협회는 애초 올해 국제선 월 평균 여객 수를 지난해 대비 6.3% 증가한 535만8548명으로 전망했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 올해 상반기 여객 전망을 지난해 대비 65.8% 낮춘 172만4011명으로 잡았다.

상반기 여객 전망 감소치를 국제선 평균 운임(27만9955원)으로만 계산해도 5조 원이 넘는 셈이다. 다만 이는 2월 넷째주 기준으로 산출한 것이어서 이후 일본의 입국 제한 조치로 당분간 한·일 하늘길마저 사실상 끊기게 된 점을 감안하면 피해액은 이보다 훨씬 더 커질 수 있다.

사실상 국제선 운항을 접은 저비용항공사(LCC)의 경우 수익은 ‘제로’에 가깝지만 하유미 기자 jschs508@

만 항공기 리스료와 사무실 임차료, 공항시설 이용료 등 고정비용이 인건비를 제외하고 한 달에 평균 100억~200억 원 든다. 이 비용은 그대로 적자로 쌓이고 있다.

운항 감축도 잇따르면서 2월 넷째 주의 경우 항공기 운항 횟수도 애초 624편에서 409편으로 줄었다. 결항률은 34.5%다.

이 역시 미주와 유럽 노선의 감축은 반영되지 않은 것이어서 9일부터 적용되는 일본 노선의 대규모 운항 중단까지 더해지면 여객 규모는 급격히 쪼그리들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나항공은 1990년 서울~도쿄 노선에 취항한 이후 30년 만에 아예 모든 일본 노선의 운항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티웨이항공과 진에어, 이스타항공, 에어부산 등 LCC도 그나마 유지해 오던 일본 노선을 9일부터 당분간 아예 셧다운하기로 했다. ▶하유미 기자 jschs508@

오늘부터 만 10세 이하·80세 이상 마스크 대리구매 허용

## 자녀와 ‘5부제 요일’ 다르면 두 번 줄서야

### 신분증·주민등록등본 제시

#A 씨는 1986년생 전업주부다. 정부의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에 따르면 월요일에 마스크를 살 수 있다. A 씨에게는 2010년에 태어난 아이가 있다. 대리구매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아이가 쓸 마스크는 금요일에 따로 줄을 서야 한다. 이마저도 약국에 공급된 마스크가 다 팔리면 A 씨가 줄을 선 수고로움은 의미 없게 된다.

▶관련기사 2·4·5·8·9·10·12·15·16면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8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만 10세 이하 어린이와 만 80세 이상 어르신의 마스크 대리구매를 허용하는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6일 마스크 수

급 안정화 대책을 내놓으면서 대리구매 확대는 없다고 강조했다가 3일 만에 이를 뒤집고 대리구매를 허용한 것이다.

대리구매는 9일부터 가능하다. 대상은 2010년 이후 출생한 어린이 458만 명과 1940년 이전 출생한 노인 191만 명, 장기 요양급여 수급자 31만 명이다. 생일이 지난 만 10세와 생일이 지나지 않은 만 80세도 대리구매 가능 대상이다.

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이어야 대리구매가 가능하며 대리구매자는 자신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공인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자신과 대리구매 대상자가 병기된 것)을 제시해야 한다.

문제는 줄서기다. △월요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1·6년 △화요일 2·7년 △수요일

일 3·8년 △목요일 4·9년 △금요일 5·0년 인 사람이 마스크를 살 수 있다.

대리구매자는 대리구매 대상자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해당하는 5부제 요일에 마스크를 살 수 있어 본인과 대리구매 대상자의 5부제 요일이 다를 경우 두 번의 줄서기를 해야 한다.

줄서기를 했다고 해서 구매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약국은 하루 약 250매, 하나로 마트는 약 100매 공급되기 때문에 다 팔리면 살 수 없다.

한편, 정부는 마스크 대란 극복을 위해 6월 말까지 150달러(미국에서 들어오는 경우 200달러) 이하의 개인 마스크·손소독제·체온계 해외직구(직접구매)를 완전 허용했다. ▶세종=노승길 기자 noga813@

# 글로벌 경기부양 움직임… 0%대 ‘초저금리 시대’ 초읽기

## 코로나19發 ‘금리 인하’ 바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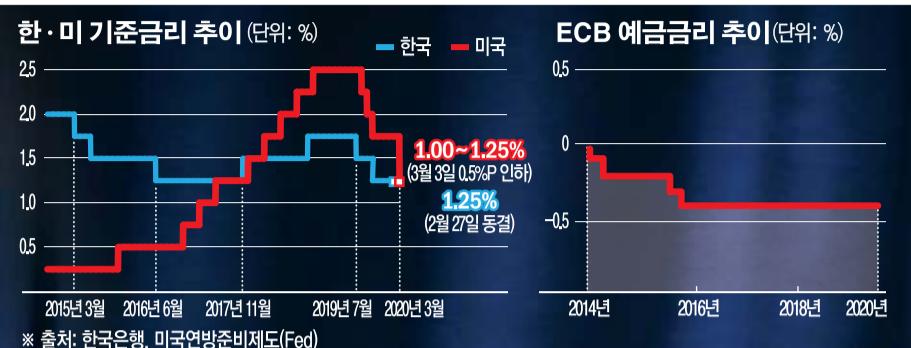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세계가 다시 초저금리 시대에 접어드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주요 7개국(G7) 중앙은행 및 재정 당국이 경기 부양 공조를 약속한 가운데, 미국과 캐나다에 이어 유럽중앙은행(ECB)도 공격적인 경기부양에 나설지 귀추가 주목된다.

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ECB는 12일 통화정책회의를 열어 금리 인하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 시장에서는 ECB가 -0.5%인 예금금리를 10bp 더 내리고, 양적완화(QE) 규모도 확대할 것이라고 나오고 있다.

ECB가 이번에 중앙은행의 조율된 경기부양 의지를 다시 확인한다면 위험자산 투자 심리가 다소 회복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세계 주요국이 제로(0) 금리를 향해 달리거나 이미 제로금리를 운영하는 상황에서 더 많은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하는 상황이 연출된다.

ECB, 12일 통화정책 회의 개최  
예금금리 10bp ↓ · 양적완화 전망  
연준도 내주 ‘추가 인하’ 저울질  
한은, 내달 0.25%P 인하 관측  
기준금리 1% 역대 최저 가능성



다만 정책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ECB가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처럼 적극적인 행보에 나서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추가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ECB 내부의 의견도 표출된 바 있다.

앞서 연준은 3일 기준금리를 0.5%포인트 파격 인하했다. 0.25%포인트씩 금리를 조정하는 ‘그린스펀의 베이비스텝’ 원칙에서 벗어난 ‘0.5%포인트 빅 컷’이자, 예정에 없던 ‘깜짝 인하’였다. 이울러 연준은 지난주 기습 금리 인하에 이어, 다음 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도 추가로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지속 확산하는 상황에서는 통화 완화도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이 여전하다. 중앙은행의 다급한 행보가 오히려 경제 상황에 대한 불안감을 더 키운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연준이 FOMC를 기다리지 않고 금리를 전격적으로 내려야 했을 정도로 경제 상황이 나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 것이다. 연준이 예정된 정례회의가 아닌 시점에 금리를 인하한 것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는 처음이었다.

실제로 연준의 극약 처방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불안은 달라지지 않았다. 지난주 뉴욕증시는 극심한 불확실성을 노출하면서

롤러코스터 장세를 연출했다. 다우지수는 2일과 4일 각각 1293.96포인트와 1173.45포인트 치솟았고, 3일과 5일에는 785.91포인트와 969.58포인트 고꾸라졌다. 한편 G7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3일 오전 콘퍼런스콜(전화 회의)을 가진 뒤 공동 성명을 통해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모든 정책수단을 다 동원할 것이며, 행동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G7은 미국과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등을 말한다. 이날 전화 회의 직후 연준은 기준금리 인하에 나섰고, 뒤이어 캐나다 중앙은행(BOC)도 2015년 중순 이후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했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는 6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시장의 불안을 잠재우고, 경기 하방 위험을 피하기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우리나라로 다음 달 9일 예정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하가 사실상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0.25%포인트만 낮춰도 한국의 기준금리는 역대 최저치인 1.00%로 떨어지게 되며, 1%대 초반인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질 기준금리는 사실상 ‘제로’가 된다.

변효선 기자 hsbyun@

## 코로나19 ‘경제적 영향’ 평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최악의 상황으로 전개되면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이 1%포인트(P) 하락하고, 취업자는 36만 명 가까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8일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코로나19 경제적 영향 평가’에서 △중국 여행 금지와 내수 감소가 6개월간 지속 △한국에서 코로나19 발생이 3개월간 지속 △중국의 소비·투자가 2% 감소 △한국의 소비가 2% 하락 △중국에서 해외로 나가는 관광객이 6개월간 절반으로 감소 △아시아 외국가에서 아시아를 찾는 관광객이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사태 때 보다 40% 추가 감소하는 상황을 전제로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165억3100만 달러(약 19조70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 ADB “최악의 상황 땐 韓성장률 1%P 하락”

### KDI “경제심리 악화로 내수 위축”… 블룸버그 “세계 GDP 3200兆 증발 우려”

로 전망했다. 이는 한국 GDP의 1.02% (2018년 기준)이다.

이 경우 취업자 수도 35만7000명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전체 취업자의 1.19% 수준이다.

분야별로는 운수업이 가장 큰 타격을 입는다. 운수업 생산액 증가율은 2.41%P 하락하며, 금액으로는 13억2241만 달러 줄 전망이다. 호텔·레스토랑·기타 개인서비스는 2.13%P(26억6120만 달러), 농업·광업·채석 분야는 1.51%P(5억7510만 달

러), 기업·무역·공공서비스는 1.00%P (77억8741만 달러), 경·중공업과 공공사업·건설업은 0.67%P(41억8481만 달러) 각각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은 이미 가시화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날 발간한 경제동향 3월호에서 “코로나19의 영향이 본격화한 2월부터 수출이 중국을 중심으로 부진했으며, 내수도 경제심리 악화로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우려했다.

주요 지표를 보면, 2월 중반부터 코로나

19가 국내에 확산하면서 제조업 계절조정 기업경기실사지수(BSI) (78→67)와 전산업 BSI(75→65) 실적치가 모두 큰 폭으로 하락했다. 한국은행의 전산업 BSI 실적치 조사가 시작된 2003년 이후 지수가 65 이하로 하락한 시기는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과 2016년 2월뿐이었으며, 전월 대비 하락 폭(-10P)은 조사 이후 최대치다. 같은 달 소비자심리지수도 전월 104.2에서 96.9로 하락했다.

코로나19가 세계적인 대유행(팬데믹·

Pandemic)으로 확산하면 전 세계 GDP가 최대 3200조 원가량 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블룸버그 산하 연구기관인 블룸버그 인텔리전스(BI)의 ‘글로벌 인사이트’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충격 수준별로 올해 세계 GDP가 1870억 달러(223조 원)에서 2조6810억 달러(3197조 원)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가장 부정적인 시나리오는 코로나19가 팬데믹으로 악화해 GDP 감소세가 3분기까지 이어지는 상황이고, 반대는 코로나19 사태가 중국에 한정되고 2분기부터 경제가 회복되는 상황이다. 최악의 시나리오에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은 0.1%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기준에 BI가 내놓은 세계 경제 성장을 전망하는 3.1%였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따뜻한 마음이 모여  
봄이 됩니다

함께하겠습니다. 응원합니다.

환자 곁으로 향하는 의료인들의 발걸음,  
달려와 방역을 서두르는 믿음직한 두 손,  
감싸주고 안아주는 진심 어린 눈빛.

모두의 마음이 모이면, 곧 봄이 됩니다.

현대백화점그룹

# 아파트 대신 車만 빼곡… 행복주택 부지 7년째 허송세월

## 일방통행식 공공주택 정책… 곳곳 파열음

2013년 시범지구 7곳 중 1곳 무산… 잠실유수지 등 3곳 방치  
공공주택지구 지정되면 ‘주민 반발’ 역풍, 일부 행정소송까지  
전문가들 “정권 바뀔 경우 주택공급 계획 전면 백지화될 수도”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유수지 약 7만 4000㎡ 넓이인 이 땅은 잠실 아파트촌이 생길 때 함께 만들어졌다. 탄천이 넘치더라도 유수지에서 물을 가둬놔 아파트촌에 물난리가 나는 걸 막기 위해서다. 1990년 대부터 주차장으로도 쓰이고 있다. 지금도 주중이고 주말이고 만차 상태다.

원래대로면 지금쯤 이 자리엔 차가 아니라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섰어야 했다. 국토교통부는 2013년 잠실유수지에 행복주택 시범지구 7곳 중 하나로 지정했다. 잠실유수지 위에 아파트를 올려 사회 초년생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행복주택 1800가구를 공급한다는 구상이었다. 문제는 주민 반대였다. 정부가 주민과 논의 없이 행복주택 건설을 ‘깜짝 발표’한 탓에 곳곳에서 주민 반대가 거셌다.

2015년 주민 반대가 가장 심했던 서울 양천구 목동 행복주택이 백지화됐다. 다른 시범지구 중 서울 노원구 공릉동과 서대문구 가좌동, 구로구 오류동에선 예정대로 사업이 추진됐지만 잠실과 송파, 안산 고잔동에선 행복주택 사업이 흐지부지됐다. 그 후 어떤 대안도 나오지 않았다. 지금까지 잠실유수지가 주차장 노릇을 하는 이유다. 애초 국토부 계획대로였다면 이들 3개

지역에서만 4900가구가 지어졌어야 했다. 이병훈 국토부 공공주택총괄과장은 “잠실·송파지구에서 새로운 형태의 공공주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재작년부터 송파구와 논의를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로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허풍선’ 주택 공약이 제대로 힘을 내지 못하고 있다. 충분한 사전 작업 없이 무리한 목표를 내세웠다가 주민 반대에 부딪혀 표류하는 일이 적잖다. 전문가들은 ‘일방통행식’ 정책 추진이 주택 공급에 차질을 일으킬 것으로 우려한다.

최근에도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이 휘청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공주택지구 조성이 추진되는 지역은 37곳이다. 정부 구상에 따르면 이들 지역에서 2026년까지 30만 60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공공주택지구 조성을 발표할 때마다 반대가 일었다. 정부의 일방적인 사업 추진에 반대하는 각 지역 주민이 연합해 ‘공공주택지구 전국 연대 대책협의회(전국연대)’까지 꾸려졌다. 토지 소유자가 납득할 만한 수용·보상 방식을 마련하라는 게 이들 주장이다. 임채관 전국연대 의장은 “국



##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공공주택지구 추진 현황

지구 수			공급 가구(만 가구)
주거복지로드맵/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	14	6	구리 갈매, 군포 대야미, 부천 광안 등
30만 호 주택공급계획	1차	6	성남 신촌, 의정부 우정, 시흥 하중 등
	2차	8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과천 등
	3차	7	고양 청릉, 부천 대장, 안산 장상 등
총계	35	30.6	-

※ 국토교통부가 승인권자로 직접 사업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

가에서 일방적으로 공공주택지구를 추진해놓고 혈값에 강제 수용하려 한다”며 “불가피하게 공공주택을 지어야 한다면 사전에 합리적인 수용·보상체계를 마련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반대에 공공주택지구 조성은 곳곳에서 파열음을 내고 있다. 경기 시흥시

허중동 주민들은 올 1월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취소해달라고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들은 국토부가 주민과 소통 없이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로 공공주택지구 조성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한다. 2023년부터 3213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웠던 국토부로선 악재다.

경기 성남시 서현동에선 공공주택지구 조성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시의원 주민소환까지 준비하고 있다. 주민 뜻에 반해 공공주택지구 조성을 막지 못했다는 게 이유다. 서현지구 개발에 반대하는 측에선 국토부 등이 교육·교통 인프라 확충 없이 공공주택만 늘리려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서현지구엔 2023년까지 공공주택 2500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김구철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1, 2기 신도시를 조성할 땐 소통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다”면서도 “이번엔 지난해만 100회 이상 간담회를 열었다. 지구 지정이 마무리되면 주민과 갈등 문제가 거의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일방적인 주택 공급을 추진하다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이대로 가면 정권이 바뀌면 주택 공급 계획이 백지화되는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택 공급 취지를 주민들에게 설득하고 공공주택지구 조성으로 주민들이 입는 피해에는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박종화 기자 pbell@

## 설레발 단군 아래 최대 개발… 용산은 괴로워

31兆 규모 ‘국제업무지구’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흐지부지  
2018년 ‘용산 마스터플랜’ 발표… 집값 폭등하자 다시 보류

‘단군 아래 최대 개발사업’으로 불렸던 서울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사업비만 무려 31조 원에 달했던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은 첫 삽을 뜨기도 전에 무산되는 아픔을 겪었다.

2008년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가 ‘치명타’가 되기는 했으나 서울시의 개발과 육과 한국철도공사(코레일)·민간회사들의 무리한 사업 추진이 불라운 결과였다. 2013년 4월 백지화된 사업에 다시 불을 붙인 것은 박원순 서울시장이었다. 2018년 싱가포르에서 ‘용산 통개발’, 일명 용산 마스터플랜을 언급한 것이다.

용산 마스터플랜은 기준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에서 범위를 더 확장해 용산역 일대를 포함해 한강변·서울역을 아우르는 349만㎡ 부지를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초대형 개발계획이다. 그러나 선부른 발표는 집값 폭등을 불러왔고 용산 마스터플랜은 또 다시 보류됐다.

통개발은 보류됐지만 서울시가 용산 개발에 완전히 손을 놓은 것은 아니다. 용산 역을 중심으로 부분 개발에 나섰고, 그 결과 서울 한복판에 위치했으면서도 낡은 건물이 즐비했던 용산역 주변은 고층 주상복합과 쇼핑몰, 대기업 본사 건물들이 들어서며 상전벽해하고 있다.

지난해 말에는 용산역 후면 용산전자상가 인근 유수지와 자동차정류장 약 1만 4000㎡를 도시재생 혁신지구로 지정, 개발한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서울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시행자로 나서 60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해 공공시설



서울 용산 혁신지구 국가시범사업 조감도.

과 신호회망타운, 청년주택을 짓게 된다.

이에 용산 통개발 가능성도 다시 거론되고 있다. 특히 코레일이 지난해 9월부터 용산역 인근 용산국제업무지구 부지 정회작업을 시작한 것을 두고 용산 통개발 위한 전 단계가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서울 주택시장 안정에 ‘울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집값 상승을 불러올 수 있는 용산 마스터플랜을 서울시가 전격 발표하기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박 시장도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여의도·용산 마스터플랜을 보류하겠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 동북권 핵심 개발 사업인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사업은 비교적 순항하는 모습이다. 핵심 프로젝트 중 하나인 ‘창동 창업 및 문화산업단지’ 개발사업은 벌써 착공에 나선 상황이다. 2023년까지 약 1만 9300석 규모의 국내 최대 실내공연장인 ‘서울아레나’와 예술 관련 스타트업 육성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문선영 기자 moon@

**KYOBOKBO 교보증권**

금융투자협회신사망 제 17-04981호(2019.11.15~2020.11.14)  
교보증권 증권판매인 신사망 제 75-158호(2019.11.15~2020.11.14)

**슈퍼그레이트 WIN.K**

**교보증권 WIN.K 체크카드**

**교육비 할인 서비스**  
국내전 회원인 10% 청구 할인  
교보문고, 편의점, 영풍문고,  
빈디엔루니스 및 어학시험 음시료  
10% 청구 할인

**주유 할인 서비스**  
SK주유소, F-OIL, GS칼텍스  
현대모일뱅크 리터당 100원 할인

**부가 상품 서비스**  
스마트폰, 커파인, 투썸플레이스 등  
CJ, GS25, 세븐일레븐 등 10% 청구 할인  
SKT, KT, LGU+ 이동통신요금 30% 할인

**CMA 금융서비스 혜택**  
CMA 자동부자에서 수익 제로  
주식거래까지 One Stop 서비스

**연회비 없이 누리는 신용카드급 혜택**  
(전월 실적 기준 충족 시, 월 최대 4회 3점원 캐시백)

**위 혜택이 실화인지 지금 바로 신청해보기**

1 Win.K 설치 후 비대면 계좌 개설 시작  
2 본인인증 Win.K 체크카드 신제  
3 주소 등 정보입력  
4 신분증 활용  
5 계좌인증  
6 신청완료 카드 배송 시작

**투자자 유의사항**

당사는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려진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운용 결과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归属합니다.  
비과세를 통한 당시 최초 계좌 개설과 결제의 경우 MTS 휴대폰 요금 14%의 주식매매 수수료를 부과됩니다.  
체크카드 카드 상세 내용은 당사 홈페이지 또는 소비자지원센터(1544-09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실상 국제선 끊긴 LCC “이달 버티기도 힘들다”

한국發 입국 제한 120곳 확대… 韓·日 ‘무비자 입국 중단’도 악재  
이스타·에어부산 등 ‘국제선 0’… 예약 취소 증가, 4월 최대 고비  
항공업계 “정부 대책 턱없이 부족… 세금 면제·기금 지원” 호소

‘코리아 포비아’로 한국발 입국제한 국가가 100개국을 넘어선 가운데, 일본까지 가서해 항공업계가 충격에 빠졌다.

8일 외교부에 따르면 오전 9시 기준 한 국발 입국자 금지 및 제한 조치를 취한 국가 지역은 총 120곳으로 집계됐다.

오스트리아가 9일부터 한국과 중국(일부지역), 이란발 항공편으로 입국한 내·외국민에 대해 코로나19 음성판정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상투메프린시페는 한국과 중국 등을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한 조치를 철회했다.

5일 일본 정부가 한국인 무비자 입국 제도를 임시 중단하고 한국발 모든 여행객을 14일간 격리 조치하기로하면서 사실상 전면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으며, 하루 만에 아프리카 상투메프린시페와 모리타니아, 부르키나파소가 추가됐다.

업계 전문가들은 한국발 입국 제한 조치가 더욱 확산될 경우 국내 항공사들이 이를면 다음달, 특히 국제선 노선이 ‘제로’에 가까운 저비용항공사(LCC)들은 이달도 버티기 힘들 것이라면 최악의 시나리오를 배제하지 않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항공 예약 취소도 많아지고 있어 4월이 최대 고비가 될 것”이라며 “잠잠해지지 않을 경우 상반기도 버티기 힘들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LCC 관계자는 “최근 일본마저도 입국 제한 조치가 이뤄져 각 LCC들이 운항 가능한 해외 노선은 몇 개 남지 않았다”면서 “이 같은 위기가 지속되면 이달 조차도 넘기기 힘든 상태다”라고 토로했다. 이스타 항공, 에어부산, 에어서울은 현재 남은 국제선이 아예 없다.

이에 항공업계는 정부의 긴급 지원이다 급해졌다. 항공사들은 일제히 △국제항공 운수권·영공통과 이용권·슬롯 횟수 유예

△공항주기료·착륙료·시설 이용료 감면△ 세금 감면△관광진흥개발기금 지원 등의 지원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세금 감면에 대해서는 항공기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감면, 항공기 부품 무관세, 국내선 항공유 관세 및 석유수입 부과금 면제 등을 꼽았다.

현재 지방세는 LCC만 취득세 60%, 재산세 50% 감면 혜택을 받고 있어 대형항공사(FSC)들도 이 같은 완화가 필요하다. 미국, 영국, 중국 등 경쟁국 FSC는 자국에서 지방세를 감면해주고 있다.

부품 무관세는 항공정비(MRO) 산업 육성을 위해 주요 경쟁국에서 면제하고 있어 우리도 동일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요청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7일 항공 분야 긴급 지원 대책을 발표하며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LCC에 대해 산업은행의 대출심사 절차를 거쳐 최대 3000억 원 내에서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다.

또 내달부터 최대 3개월간 공항시설 사용료에 대한 납부를 유예하고 상반기 중 항공 수요 회복이 안 될 경우에는 6월부터 2개월간 착륙료를 10% 감면하고, 각종 사용료의 감면 기한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LCC 사장단은 “정부가 제시한 지원은 납부 유예로 실질적 지원이 못 된다”며 “이에 대한 전면 감면 조치를 시행하고 추가로 항공기 재산세와 항공유 수입 관세 등 각종 세금을 감면해달라”고 요청했다.

C항공사 관계자는 “정부가 어떤 정책을 하겠다고 언급만 했지, 어떻게 이뤄지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은 없었다”면서 “항공사들이 정부에 제안한 여러 정책들이 빨리 시행되기를 바랄 뿐이다”라고 강조했다.

하유미 기자 jschs508@  
한영대 기자 yeongdai@



## 항공업계가 바라는 정부 지원책

- 국제항공운수권, 슬롯 횟수 등에 대한 유예
- 공항주기료, 시설 이용료에 대한 선제적인 감면
- 항공기 지방세 등 세금 감면
-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원
- 조건없는 긴급 경영안정자금 투입

## 신기술 전시회 줄줄이 취소… 속타는 기업들

### 온라인 신제품 체험 한계

### 영업 전략에 차질 불가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 세계로 확산하면서 굵직한 글로벌 행사들이 취소되거나 연기되고 있다. 통상 1분기에 신제품과 기술을 소개하고 한 해 영업에 돌입해야 하는 기업들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온라인 마케팅에 한계가 있는 만큼 기업들은 대안 찾기에 분주하지만 아직 뚜렷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 MWC 취소… 온라인 마케팅 강화 = 8일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스마트폰 브랜드들은 최근 온라인이나 유튜브를 통해 신제품을 공개하고 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되는 세계 최대 모바일 박람회 ‘MWC’가 코로나19 우려에 취소되면서 이 자리에서 신제품을 발표하려고 했던 기업들이 온라인으로 무대를 옮겼다.

중국 최대 스마트폰 업체 회웨이는 지난달 24일 스페인에서 가상 프레스 콘퍼런스를 열고 신형 폴더블 스마트폰 ‘페이트 Xs’를 발표했다. 일본 소니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카메라 성능을 강화한 엑스페리아 신제품을 공개했으며, 노키아 브랜드를 소유하고 있는 HMD 글로벌도 온라인 생중계로 대체했다.

### 글로벌 전시회 및 기업 마케팅 변화

MWC(모바일 박람회)	취소
ISE(유럽 최대 상업용 디스플레이 전시회)	LG전자 및 중국 50여개 업체 불참
세미콘(한국·중국·동남아 등 글로벌 반도체 행사)	취소 또는 연기
프리-IFA(유럽 최대 가전전시회 IFA 사전행사)	취소
구글 I/O(연례 개발자 회의)	취소
HIMSS(의료 IT 콘퍼런스)	아마존, 인텔, 시스코 등 불참
페이스북 개발자 콘퍼런스·마케팅 콘퍼런스	취소
제네바 모터쇼	취소
부산 모터쇼	하반기 연기 검토
현대기아차	신차 출시 하반기로 연기/공개 행사 연기 또는 미정

삼성전자는 체험형 마케팅인 ‘갤럭시 스튜디오’를 축소하고 ‘언택트(Untact)’ 비대면 마케팅을 시작했다.

◇ 반도체·가전·디스플레이 출줄이타격 = 유럽 최대 가전 전시회인 IFA의 사전 행사도 취소됐다. 프리 이파(pre-IFA)라 불리는 IFA 글로벌 프레스 콘퍼런스는 매년 가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IFA에 앞서 4월 주최 측이 진행하는 미디어 행사다.

유럽 최대 상업용 디스플레이 전시회인 ISE 2020도 반쪽짜리 행사에 마무리된다. 코로나19 여파로 LG전자를 비롯한 중국 50여 개 업체가 불참했다.

반도체 업계도 코로나 후폭풍이 거세다. 1월 한국에서 열리는 글로벌 반도체 행사인 ‘세미콘 코리아’가 취소됐고, 3월 ‘세미콘 차이나’도 무기한 연기됐다. 5월 말레이시아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세미콘 SEA’도 8월로 연기됐다.

◇ 제네바 모터쇼 1주일 앞두고 취소 = 스위스 제네바모터쇼가 개막 1주일을 앞두고 전격 취소됐다. 유럽 메이커는 물론, 올해 제네시스의 유럽 출시를 준비해온 현대차의 현지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기아차는 세계 3대 시장으로 떠오른 인도에서 카니발을 상반기 출시할 계획이었는데, 잠정 연기했다. 국내 사업 차질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격년으로 개최해온 부산모터쇼(5월 28일)는 하반기 연기를 검토 중이다. 기아차 쏘렌토는 사전계약에 이은 판매 준비 중이지만 출시 행사는 미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온라인 마케팅을 강화한다고 해도 비대면 마케팅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스마트폰과 자동차 등 체험이 중요한 제품은 마케팅 고민이 깊다”고 밝혔다.

권태성 기자 tskwon@

# 똑똑, 나나도 될까요?

어린이들이 맘껏 뛰어놀 수 있는 세상인가요?

상처받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나요?

깨끗한 집에서 건강하게 지낼 수 있나요?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환경개선 사업을 통해  
어린이가 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아동을 먼저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주거정책이 어린이들을 먼저 생각할 수 있도록, 아동 주거권 증진을 위한 ‘집다운 집으로’ 캠페인의 제도 개선 촉구 서명에 참여해주세요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 함께 해주세요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  
1588-1940  
www.childfund.or.kr

&lt;8일 0시 기준 확진환자 94명&gt;

# ‘집단 감염자’ 천안 줌바댄스 3주간 무방비 노출

강사 워크숍 참석한 29명에 의해 9일간 2·3차 감염  
첫 확진환자 확인 늦어… 추가 환자 발생 가능성 커

지난달 15일 천안에서 열린 줌바댄스 워크숍이 신천지(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에 이은 새로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지가 됐다. 8일 0시 기준 줌바댄스 관련 확진환자만 94명이다. 집계시점 이후에도 서울·세종·대구 등에서 관련 확진자가 계속해서 추가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8일 0시까지 총 7134명(오후 4시 7313명)의 코로나19 확진환자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0시 기준으로 신천지 등 집단 발생 사례는 5667명으로 전체의 79.4%에 달한다.

신천지(4482명)와 경북 청도군 대남병원(120명)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집단 감염을 낸 사례는 천안 줌바댄스 강사 워크숍이다. 천안을 중심으로 천안에서 92명, 세종에서 2명이 확진됐다.

천안에서 처음 집단 감염이 확인된 건 지난달 24일이다. 워크숍(15일) 이후 9일 간 워크숍 참석자(29명)들을 통한 2·3차 전파가 이뤄졌다. 워크숍 참석자 중 현재 까지 5명이 코로나19 양성으로 확인됐다. 세종에선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1명도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 기간에 전파가 이뤄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워크숍 참석자 중 1명이 세종에서 줌바댄스 강습소를 운

영했는데, 워크숍에 참석 후 이달 5일 확진 판정을 받기까지 수업을 진행했다.

첫 확진환자 확인이 늦었던 만큼, 추가 확진환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 아직 방대본 집계에는 반영되지 않았으나 서울과 세종, 대구에서 줌바댄스 관련 환자가 추가로 나왔다.

특히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가 설치된 복지부에는 비상이 걸렸다. 복지부 확진자는 지난달 21일 마지막으로 줌바댄스 강습소에 방문했는데, 7일 확진 되기까지 약 보름을 정상 출근했다. 강사의 확진 사실이 늦게 확인된 탓에 증상을 인지한 시점도 늦어진 것이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환자분은 천안 워크숍에 참석했던 강사로 인해 감염된 것으로 보고 있고, 우리가 추정하기로는 지난달 21일 면담에서 노출됐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그 이후 발병일을 기준으로 접촉자에 대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즉각대응팀과 세종시 보건소 역학조사팀이 역학조사를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접촉자는 27명으로 모두 자가격리 조치됐으며, 환자와 같은 국에 근무하는 51명은 집단검사에서 음성으로 확인됐다.

워크숍 참석자 중 누가 감염원인지, 어



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대구시 수성구 대구스타디움에서 면마스크를 쓰고 코로나19 대응 지원 물품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마스크 5부제’ 본격 시행을 하루 앞둔 8일 전국 편의점 마스크 재고 정보를 알려주는 사이트인 ‘마스크 알리미’가 개설돼 운영되고 있다. 사진은 서울 한 편의점 앞에서 휴대폰으로 ‘마스크 알리미’를 통해 본 ‘품절(SOLD OUT)’ 안내 표시 현황. 연합뉴스

역사회에서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줌바댄스 외에도 특정 집단·시설을 중심으로 한 집단 감염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신천지 신도들이 다수 거주하는 대구 한마음아파트에서 입주민 140명 중 46명이 양성으로 확인됐다. 총 확진환자

중 신천지 관련 사례는 4482명으로 62.8%에 달했다. 경기 성남시 분당제생병원에선 13명의 확진환자가 발생했는데, 이 중 입·퇴원환자 6명은 모두 동일한 병동에 입원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 국내외 제약사, 치료제 개발 속도

美 에볼라 백신 ‘렘데시비르’  
코로나 환자에 투여 증상 호전  
국내서도 295명에 임상 예정  
이뮨메드, 치료제 임상 돌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국내외 제약·바이오기업들이 치료제 개발에 힘을 쓰고 있다. 일부 치료제의 경우 임상 마무리 단계에 돌입하면서 이르면 상반기 중 치료제 등장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8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국내외 제약사들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다. 코로나19는 2009년 유행한 신종플루보다 전파가 빠르고 치명률이 높지만, 그동안 증상을 완화하는 대증요법에만 의존해왔기 때문에 치료제 개발이 절실했다.

현재 가장 주목받는 코로나19 치료제 후보물질은 미국 제약사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렘데시비르’다. 에볼라 바이러스 치료를 위해 개발된 렘데시비르는 미국의 첫 번째 코로나19 환자에게 투여해 증상 호전을 이끌어내며 주목받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5일 서울대학교 병원이 주도하는 렘데시비르의 임상 2상 시험 계획을 승인하면서 국내에서도 렘데시비르 임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국내에서는 6곳의 의료기관에서 총 295명에 대해 렘데시비르의 임상이 시행된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원하고 미국 국립보건원(NIH)이 주도하는 다국가 연구자 임상시험 대상 100명과 앞서 식약처가 임상 3상 시험 계획을 승인하면서 195명이 추가로 임상에 참여할 수 있다.

WHO의 다국가 실험에는 서울특별시보

이 참여한다. 국내 100명을 비롯한 50개 국 394명이 참여하는 규모의 임상이다.

식약처는 앞서 길리어드에 중등도 및 중증 코로나19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임상 3상 시험 계획을 승인했다. 중등도 120명, 중증 75명으로 195명을 대상으로 한다. 경북대병원과 국립중앙의료원, 서울의료원에서 진행된다. 국내외 전체 임상 규모는 중등도 600명, 중증 400명이다.

길리어드 관계자는 “렘데시비르 임상은 각 병원의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를 거쳐 환자 모집 단계”라고 설명했다.

국내 기업들도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뛰어들었다.

바이오기업 이뮨메드는 식약처로부터 코로나19 치료 목적의 ‘HzVSVv13주’의 임상시험 승인을 받고 서울대병원에서 투약을 시작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코로나19를 비롯한 신종 감염병 대유행 시 빠르게 적용 가능한 백신 제조 기술 플랫폼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개발에 돌입했다. 또한, 질병관리본부가 수행하는 백신·치료제 개발 민관 협력 사업에 참여 중이다.

GC녹십자도 질병관리본부 사업 응모를

통해 코로나19 관련 백신과 치료제 후보물질 발굴에 나설 예정이다. 셀트리온은 코로나19 완치자의 혈액을 확보해 신약 후보물질 발굴에着手했다.

전 세계적으로는 30여 개의 항바이러스

제를 코로나19 치료에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에이즈 등 바이러스성 병원균에 예전에 시험 됐던 약물(후보)들에 대해 긴급사용 및 임상시험이 진행 중이다.

우리보다 먼저 렘데시비르 임상에 들어간 중국은 4월 중 연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중일우호병원이 후베이성에서 2건의 임상시험을 하고 있다. 효능과 안전성이 입증되면 신속한 시판허가까지 검토 할 계획이다.

유혜은 기자 euna@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무거운 편견을 걷어내면  
능력이 보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치는 행복한 일터, 편견과 차별을 버리면 함께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 與野 대진표 속속 윤곽… 통합당, 김종인 선대위원장 추진

이낙연-황교안 종로 대결… 동작을·광진을도 ‘핫플레이스’ 부상  
안양을 이재정-심재철-추혜선, 부산진갑 김영춘-서병수 ‘격돌’

4·15 총선을 약 한 달여 앞두고 전국 대진표가 속속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8일 기준 전국 253개 지역구 중 여야 정당 후보가 한 명이라도 확정된 지역은 모두 227곳이다. ‘정치 1번지’ 서울 종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의 ‘박매치’를 일찌감치 예고했고 서울 광진을과 동작을, 경기 안양을, 부산 부산진갑 등도 치열한 격돌이 예상된다.

이번 총선의 격전지는 단연 서울 종로가 될 전망이다. 두 전직 국무총리이자 차기 유력 대권 주자인 이 전 총리와 황 대표의 대결은 ‘불꽃 매치’가 기대되는 대목이다. 종로는 중도 성향의 유권자가 많아 보수와

진보 진영 대결을 예상하기 어려운 지역구로 평가된다. 실제로 민주당 소속 정세균 국무총리가 19·20대 총선에서 당선되기 전까지 16·17·18대 총선에선 통합당(당시 한나라당)이 차지한 바 있다.

광진을에서는 민주당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과 통합당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승부를 가린다. 민주당 소속 주미애 법무부장관의 지역구인 광진을은 ‘문재인 대통령의 입’으로 불린 고 전 대변인과 보수 진영의 대권 잠룡으로 거론되는 오 전 서울시장의 대결이 펼쳐진다. 고 전 대변인과 오 전 시장이 현재 오차범위에서 박빙의 접전을 벌이고 있다.

동작을은 민주당 영입 인재인 이수진 전



판사와 통합당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맞붙는다. 사법시험 34회 출신인 나 의원과 40회 출신인 이 전 판사의 ‘여성 판사’ 대결 구도가 형성됐다. 민주당은 18대 총선부터 보수 진영에 빼앗긴 동작을을 되찾겠다는 의지다. 동작을은 16·17대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가 연이어 당선됐으나 18대부터 보수 진영에 승부를 넘겼다. 나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5선에 도전한다.

경기에서도 여야 모두 공천에 공을 들인 지역구로 평가된다. 안양을은 이재정 민주



당 대변인과 심재철 통합당 원내대표, 추혜선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 간 3자 대결이 확정됐다. 심 원내대표는 안양을에서만 내리 5선을 했지만 지난 총선에서 자유한국당(현 통합당)과 민주당 후보 간 격차가 박빙이었고, 정의당도 20% 가까이 득표하며 선전한 곳이기 때문에 승부를 쉽게 예측하기 어렵다.

민주당과 통합당 거물 인사가 맞붙는 부산진갑도 눈길을 끈다. 부산진갑에서는 김영춘 민주당 의원과 서병수 통합당 전 부

산시장이 격돌한다. 김 의원은 3선으로 민주당의 부산 내 유일한 중진 국회의원이다. 문재인 정부 초대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냈다. 서 전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돌풍 속 부산시장 선거에서 낙선했다가 이후 사히갑, 북강서를 등의 지역에서 꾸준히 총선 주자로 거론됐다.

한편, 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는 ‘김종인·황교안’ 투톱을 전면으로 내세워 이번 주 후반 출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통합당은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를 상임선대위원장으로, 황교안 대표를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선대위를 구성하기로 기대를 모았다.

김 전 대표는 2012년에는 새누리당(통합당 전신)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위원장 겸 경제민주화추진단장을 지내면서 19대 총선과 18대 대선을 승리로 이끌었다.

김하늬 기자 honey@



인적 끊긴 명동거리 8일 서울 종로구 명동거리가 코로나19 여파로 주말인데도 매우 한산한 모습이다.

## 국세청 ‘과세처분 불복’ 한국타이어 재조사

### 작년 900억 추징·대표 고발

국세청이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돈 기업인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이하 한국타이어)를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8일 국세청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 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달 초 한국타이어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가 이달 말까지 일정으로 진행하고 있다.

한국타이어에 대한 세무조사는 지난해 7월 서울국세청 조사4국 주관으로 이뤄진 특별세무조사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국세청은 한국타이어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진행한 결과, 사측과 직영점 등에 대해 약 900억 원에 달하는 세금 추징과 함께 검찰에 조현범 대표를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이후 한국타이어는 국세청의 과세처분에 불복, 과세전적부심을 진행한 데 이어 올해 초 재조사 결정에 따라 또다시 서울 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 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을 신청하면 과세당국은 이를 면밀히 검토한 후 30

일 이내에 그 결과를 납세자에게 통보해 주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과세당국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납세자는 일반적으로 과세전적부심을 신청한다”며 “이를 통해 일부는 재조사 결정과 함께 애초 과세처분이 바뀌는 일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개별 기업에 대한 재조사 결정 내역뿐만 아니라 세무조사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 없고, 확인해 줄 수 있는 사안도 아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한국타이어도 이번 국세청 세무조사에 대해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다.

한국타이어 측 관계자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한국타이어와 전혀 무관한 회사”라며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 없다”고 전했다.

한국타이어는 2012년엔 지주회사(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와 사업회사(한국타이어)로 인적분할하고 지난해 지주사인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는 ‘한국테크놀로지 그룹’으로, 주력 계열사인 ‘한국타이어’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로 이름을 바꿨다.

김면수 기자 tearand76@

## 여야,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감세 논의

### 야당 “매출기준 1억까지 혜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을 위한 착한 임대료 운동이 확산하고 있다.

공공기관들도 운동에 동참해 최대 100%의 임대료를 감면하는가 하면, 축산 농가들은 코로나19 성금을 모금해 대구·경북에 전달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최근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식품업계와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aT 시설 임대료를 최대 50%까지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임대료 인하 적용 기간은 이달부터 8월까지 6개월간으로 양재동 화훼공판장, aT

업자 부가가치세 경감 △기업 접대비 필요 경비 인정(손금 산입) 한도 상향 △승용차 개별소비세 70% 한시 인하 등 5가지 내용이 포함돼 있다.

야당은 코로나19 사태로 자영업자가 큰 피해를 보고 있어 정부가 재출한 법안의 필요성에 대체로 공감한 분위기나, 정부가 내놓은 대책에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한시적으로 경감해 주자고 주장한다. 영세 개인사업자 범위를 더 넓리자는 설명이다. 여야는 이 부분을 두고 쟁점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안은 연 매출액 6000만 원 이하인 영세 개인사업자의 부가세 납부세액을 내년 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해주는 내용이다. 이 경우 총 90만 명에게 1인당 연평균 20만~80만 원 안팎의 부가세를 깎아주는 효과가 생긴다. 야당 주장대로 연 매출액을 ‘1억 원 이하’로 옮길 경우엔 부가세 감면 혜택을 받는 영세 개인사업자 100만 명 이상으로 훌쩍 늘어난다.

정부와 여당은 세수가 크게 줄어드는 점을 고민하고 있다. 김하늬 기자 honey@

## 韓·日 상호 입국제한에… 수출규제 해소 ‘난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한일 관계에까지 칼을 끼얹고 있다. 지난해 7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경색됐던 양국 관계가 수출관리 정책대화 등을 거치며 회복되는가 싶더니 코로나19 사태로 상호 입국 제한조치까지 발생하며 갈등이 커진 것. 이에 이달 10일 열리는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에서 기대했던 수출규제 해소 소식을 듣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양국 정부는 이달 10일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던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영상회의로 대체하는 것에 합의했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수출규제 해소를 기대했었다. 일본이 수출규제의 사유로 제기한 문제에 대해 개선책을 모두 마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으로 한일 양국이 상호 입국을 제한하는 조치를 잇달아 발표하는 등 갈등이 커짐에 따라 양국이 원만

한 합의를 이루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일본은 이달 5일 한국에서 일본 나리타(成田) 공항과 간사이(關西) 공항으로 들어오는 입국자를 2주간 지정된 장소에서 머물도록 하는 사실상 격리 조치를 발표했다.

일본의 발표가 나온 지 하루 뒤 외교부는 9일 0시부터 일본에 대한 비자 면제 조처와 이미 발급된 비자의 효력이 정지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23일 한국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종료 직전 대화의 물꼬를 튼 한일 관계 역시 다시 경직되는 분위기다.

세종=노승길 기자 noga813@

# ‘인생금융전문가 삼성생명FC’는 무엇이 다를까요?

**생명보험 뿐 아니라 손해보험, 카드, 펀드까지!**  
인생에 꼭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금융 컨설팅이 가능합니다



해당 자격(손해보험, 카드, 펀드, 증권, 퇴직연금)을  
취득한 경우 제안 및 컨설팅이 가능합니다

## 인생금융전문가 삼성생명FC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보세요

### 고소득 전문직이니까!

컨설턴트 월평균 소득 407만원  
상위 50% 소득 643만원  
삼성생명 개인영업본부 자료(2016년 기준)

### 정년없는 평생직업이니까!

20대부터 90대까지  
누구나 할 수 있는 평생직업

### 교육도 체계적이니까!

단계별 맞춤교육을 통해  
재정전문가로 육성

지원 상담 : 1588-3114

삼성생명

SAMSUNG

# 코로나로 사분오열된 석유 카르텔…국제유가 10% 폭락

OPEC+, 추가 감산 러 반대로 무산  
WTI 41.28달러…5년 새 최대 낙폭  
브렌트유도 9.5% 하락…45.27달러  
사우디 “사상 최대 증산” 반격 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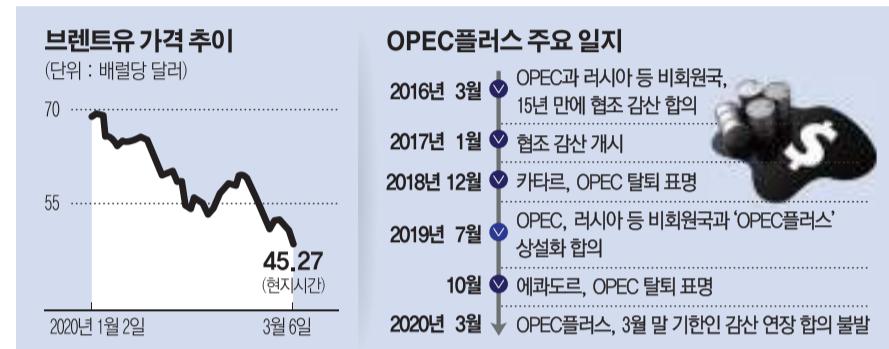
국제 원유시장을 주락펴락해온 중동 석유 카르텔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아 사분오열(四分五裂) 양상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19에 따른 투자 심리 위축으로 국제유가가 계속 급락하는 가운데, 6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OPEC 플러스(석유수출국기구 회원국과 주요 10개 산유국 연합) 장관급 회의에서는 감산 규모 확대 등 협안에 대해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다. OPEC 맹주인 사우디아라비아가 감산 확대를 주장했지만, 석유시장 점유율 하락을 우려하는 러시아가 반기를 들면서 합의가 불발됐다. 이에 공동 기자회견도 취소됐다.

이 여파로 국제 원유시장이 크게 출렁였다. 4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중질유(WTI)는 배럴당 10.1%(4.62달러) 떨어진 41.28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2016년 8월 이후 최저치이며, 하루 낙폭으로는 2014년 11월 28일 이후 5년여 만의 최대 폭이다. 런던 ICE 선물거래소의 5월물 브렌트유도 9.50%(4.75달러) 내린 45.27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낙폭은 2008년 12월 이후 가장 커졌다.



압둘 아지즈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에너지 장관이 5일 오스트리아 빈의 석유수출국기구(OPEC) 본부로 들어가고 있다. 빈/AP연합뉴스



전문가들은 “원유시장 점유율 경쟁을 중단하고, 유가 부양을 위해 2017년 1월부터 이어온 세계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와 러시아의 공조 체제에 균열이 생긴 것”이라며 “이것이 시장 심리에 타격을 줬다”고 분석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당시 OPEC플러스는 하루 평균 150만 배럴을 추가로 감산

하는 방안을 놓고 협상을 벌였다. 그러나 끝내 러시아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 또 OPEC플러스는 이달 말 종료하는 기존 감축량에 대한 기간 연장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알렉산더 노박 러시아 에너지 장관은 “OPEC과 비OPEC 간 산유량 협상은 더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 내려진 결정을 고려하면, 다음 달 1일부터 우리를 포함해

어떠한 OPEC 혹은 비OPEC 국가도 감산 요구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산유국 간 공조에 균열이 일자 사우디는 초강수를 꺼내 들었다. 4월에 하루 1000만 배럴을 크게 웃도는 규모의 증산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7일 블룸버그는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을 인용, “사우디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폭의 증산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며 “사상 최대인 하루 1200만 배럴까지도 가능하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원유 수요가 크게 침체된 상황에서 사우디가 공급량을 늘릴 경우 국제 원유시장에 큰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럼에도 사우디가 사상 최대 규모의 증산이라는 초강수를 꺼내든 건, 러시아와 다른 산유국들에 최단시간에 최대한의 고통을 가해 그들을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게 하려는 시도라고 블룸버그는 분석했다.

하지만 산유국 간 입장 차가 워낙 뚜렷한 만큼 쉽사리 합의점을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적으로 산유국들은 가격이 오를 때에는 결속이 쉽지만, 하락 국면에서는 입장 차이가 두드러지는 경향이 있다.

사우디는 국영 석유회사 사우디아람코의 해외 기업공개(IPO)를 성공시키기 위해 유가 회복이 절실했지만, 러시아 등은 감산에 따른 점유율 하락에 강한 불안을 느끼고 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코로나19라는 비상사태로 석유 카르텔 간 이해 대립이 표면화했다”고 진단했다.

변효선 기자 hsbyun@

이 와중에…권력 다지는 사우디 무함마드 왕세자

정적 왕족 3명 반역모의 혐의 체포



사우디아라비아(이하 사우디)의 ‘실세 왕자’ 무함마드 빈 살만<사진> 왕세자가 자신의 권력 기반을 더 강화하기 위해 정적이 될 수 있는 유력 왕족들을 잡아들였다.

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와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이날 사우디 정부는 빈 나예프 전 왕세자와 그의 남동생 나와프 빈 나예프 왕자, 살만 국왕의 남동생 아흐메드 빈 압둘아지즈 왕자 등 왕실 고위 인사 3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WP는 “이들은 왕위를 전탈하려고 반역을 모의한 혐의로 체포된 것”이라면서 “무함마드 왕세자가 왕실 내 입지를 강화하려는 조처로 해석된다”고 전했다.

유가 하락으로 재정이 악화하는 가운데, 왕세자의 무리한 개혁은 내부 일각에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에 무함마드는 일말의 짜을 없애기 위해 본보기로 왕위 경쟁자들을 숙청하는 것으로 보인다.

변효선 기자 hsbyun@

신규 확진자 50명 밑으로…시진핑 “빈곤타파 목표 달성”

## 경제회복 시동 거는 中

1~2월 수출, 작년보다 17% ‘뚝’

4년 새 최대폭 감소…수입 4% ↓

공장 가동 정상화 더뎌 회복 요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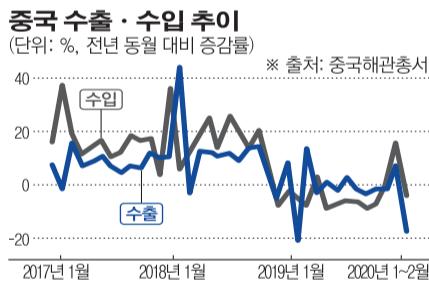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병지인 중국에서 감염자 확산세가 꺾였다. 이에 시진핑 지도부는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나서고 있다. 그러나 경제 구조가 여전히 수출 위주여서 공장 가동이 정상화하지 않는 이상 갈 길이 멀어 보인다.

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중국에서 7일 하루 동안 신규 확진자는 44명으로 1월 말 전국 단위 통계 작성 이후 최소였다. 신규 확진자는 6일 99명으로 처음 두 자릿수로 내려갔다가 하루 만에 다시 54명 감소했다. 이로써 8일 오전 8시 기준 누적 확진자는 8만695명, 사망자는 3097명을 기록했다.

중국 지도부는 중국의 감염자 수가 꺾이면서 해외에서 바이러스가 역류하지 않도록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아울러 코로나19 영향 극복과 빈곤 타파 등 경제목표 달성을 위해 다시 시동을 걸고 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전날 베이징에서 열린 빈곤타파 좌담회에서 코로나19 영향을 극복해 올해 빈곤타파의 목표를 이루자고 강조했다. 그는 “당 중앙이 모든 인민에게 약속한 것으로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면서 “조심을 유지하며 멈추지 말고 방심해서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중국 세관당국인 해관총서가 7일 발표한 1~2월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7.2% 줄어든 2924억5000만 달러(약 348조 원)에 그치는 등 코로나19 여파가



고스란히 반영됐다. 수출 감소 폭은 4년 만의 최대였다. 수입도 4% 감소한 2995억 4000만 달러였다.

전문가들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조업 재개가 지연되는 데다 방역작업으로 물류도 정체된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애플의 아이폰을 생산하는 흥하이정밀공업의 경우, 코로나19로 인력난이 여전하고, 공장 가동률은 수요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수출은 미국과의 무역 전쟁으로 침체됐다가 작년 12월에 5개월 만에 겨우 증가세로 돌아섰는데, 코로나19로 다시 큰 타격을 입게 된 셈이다.

전문가들은 중국 경제 회복이 3월 이후에 수출과 생산이 어디까지 회복될 것인지에 달렸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비관론이 우세하다. 앞서 나온 2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수출의 선행지표인 ‘해외 신규 수주’가 사상 최저인 28.7까지 떨어졌다.

맥쿼리그룹의 래리 후 수석 중국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보고서에서 “중국이 역사적인 인하강기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올해 1분기 마이너스(-) 성장률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마이너스 성장은 문화혁명이 끝난 1976년 이후 처음이다.

배수경 기자 sue6870@



## 中 코로나 격리시설 와르르…70명 매몰

2018년 6월부터 영업해왔으며, 사고 당시 구조 인력이 소독 작업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는 8일에도 경찰과 소방당국이 구조작업을 이어갔으며, 이날 새벽까지 총 47명이 구조됐다고 인민일보는 전했다.

중국 동남부 푸젠성에서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격리시설로 이용 중이던 숙박시설이 붕괴해 약 70명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총 80개의 객실이 있는 이 숙박시설은 죽인자수/신화연합뉴스

감염 440명으로 급속 확산…美 비상선포 잇따라

## 시험대 오른 트럼프 리더십

### 뉴욕 76명…워싱턴D.C.에 첫 환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미국 각지로 빠르게 확산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위기 관리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19는 미국, 유럽 등 서방국으로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 미국 존스홉킨스대학에 따르면 6일 기준 세계 확진자 수는 10만2000명에 달했다. 확진자의 80%를 차지하는 중국 본토에서는 신규 확진자가 줄어드는 반면 미국과 이탈리아, 독일 등지에서는 지난주에만 5~12배로 늘었다.

미국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누적 사망자는 19명, 확진자 수는 440명으로 각각 증가했다. 이런 가운데 수도 워싱턴D.C.에서 7일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

뮤리엘 바우저 워싱턴D.C.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첫 코로나19 ‘주정 양성’ 환자가 나왔다”고 발표했다. ‘주정 양성’은 주 단위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지만, 질병통제예방센터(CDC)로부터 확진 판정이 나오지 않은 단계를 가리킨다.

같은 동부에 있는 뉴욕주의 비상사태가 선포됐다. 뉴욕주의 코로나19 확진자는 6일까지 76명으로 전날보다 32명 늘었다. 이에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확산

예방 차원에서 비상사태를 선포한다”고 밝혔다. 뉴욕 주 외에 동부에서는 메릴랜드와 펜실베이니아 주에서 비상사태가 선포됐고, 서부에서는 캘리포니아와 워싱턴 주 등이 비상사태를 선포한 상태다.

앞서 워싱턴D.C. 인근 메릴랜드 주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등이 총출동한 보수 정치 단체 행사 ‘보수정치행동위원회(CPAC)’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첫 기자회견 때만 해도 독감 사망자가 더 많다는 식으로 코로나19 확산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으나, 동부 쪽으로도 사태가 계속 확산하자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이다. 8개월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에서도 코로나19가 큰 변수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한 것이다.

배수경 기자 sue6870@

# 전염병 경보에서 치료제 개발까지… 코로나 잡는 AI

## 코로나19 vs 4차 산업혁명 新기술

캐나다 스타트업, WHO보다 코로나 발생 조기 경보  
베이징 스타트업은 폐 CT로 감염 징후 감지 SW 개발  
신약 후보물질 찾고 학생 원격 수강 프로그램 제공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사물인터넷(IoT)과 빅데이터, 인공지능(AI)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전 세계를 처음으로 덮친 전염병이다. 최첨단 IT 기술이 이런 전염병과의 전쟁에서 효과를 발휘할지 주목된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 해외 언론에 따르면 특히 AI는 전염병 조기 경보에서 폐렴 판독, 치료제 개발에 이르기까지 코로나19 확산 억제와 관련해 여러 부문에서 맹활약하고 있다.

WSJ는 최근 캐나다 소재 스타트업 블루닷(BlueDot)이 전 세계 보건당국보다 일주일 앞서 코로나19라는 새로운 전염병이 발생했음을 조기 경보했다고 전했다. 블루닷이 코로나19에 대해 경고한 것은 지난해 12월 말이다. 반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정식으로 이 병에 대해 발표한 것은 1월 6일, 세계보건기구(WHO)는 1월 9일이었다. 직원 40명의 작은 회사가 정부와 세계적 보건기관보다 더 신속하고 적절하게 전염병을 예측한 것이다.

블루닷 AI는 65개의 언어로 된 하루 10만개 이상의 신문기사와 정부, 국제기관의 보고서,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비행기 운항 정보 등 각양각색의 빅데이터를 수집, 분석해 전염병 조기 경보를 내린다.

미국 잡지 와이어드는 바이러스 진원지인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 있는 우한대학 부속 중난(中南)병원은 뜻밖에도 최첨단 의료시설이 새로운 전염병에 얼마나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지를 보는 테스트 장(場)이 됐다고 소개했다.

중난병원 방사선과에서는 폐 컴퓨터단층촬영(CT)에서 코로나19 관련 폐렴의

시각적 징후를 AI 소프트웨어로 감지하는 실험이 진행되고 있다. 이 병원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곳은 베이징 소재 스타트업인 인퍼비전(Infervision)이다.

인퍼비전 직원들은 춘제(설날) 휴가를 반납하고 기존 폐렴 진단 알고리즘을 코로나19용으로 특화한 새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 코로나19 전용 폐렴 진단 소프트웨어는 실제 환자로부터 모은 2000개 이상의 이미지를 AI가 머신러닝을 통해 훈련하고 나서 구축한 것이다.

닛케이에 따르면 AI 전문가인 도쿄공업대학의 세키지마 마사카즈 교수는 중국으로부터 코로나19 바이러스 구조와 관련된 데이터를 입수, 증식을 막는 신약 후보물질을 AI로 찾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일본 데이터스코프(DataScope)도 안면인식과 체온 감지 기술을 결합한 새 시스템을 개발했다. 체온 감지 카메라가 있는 이 시스템은 사무실과 학교, 병원, 철도역 개찰구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코로나19 확산 예방과 통제를 위한 솔루션이 될 것이라고 데이터스코프는 강조했다.

코로나19로 일본 전역의 초·중·고교가 휴교에 들어간 가운데 AI 교육 서비스 업체 아타마 플러스는 학생들이 집에서도 수강 가능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원래 아타마 플러스는 학교나 학원의 태블릿에서만 사용 가능한 AI 앱을 제공했지만 휴교로 학생들이 자택에서 공부해야 하는 상황이 되자 가정 내 PC나 개인용 태블릿으로 자사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아타마 플러스 코치' 앱을 통해 교사나 강사가 학생 개개인의 학습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원격으로 가르칠 수 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①프랑스 파리 파스퇴르연구소에서 의학자들이 방호복을 입은 채로 바이러스를 연구하고 있다. ②일본 데이터스코프의 안면인식+체온감지 기술. ③중국 AI 스타트업 인퍼비전의 소프트웨어. ④코로나19 진원지인 중국 우한시에서 의용 방역대원들이 로봇으로 소독제를 살포하고 있다.

## 거리에 살균제 뿌리고 의료진 식사도 쟁겨

### 로봇도 가세… 감염 최소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한 가운데 로봇 기술을 사용해 전염병을 근절하려는 움직임이 돋보이고 있다.

미국 포브스는 최근 코로나19의 세계적 감염이 본격화하고 나서 로봇의 활약이 늘어나고 있다고 소개했다.

미국 워싱턴주프로비던스메디컬센터는 바이러스 진원지인 중국 우한시에서 입국한 30대 환자를 대상으로 로봇 원격 진료를 실시했다. 그 목적은 의료진을 감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동시에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로스앤젤레스(LA)에 본사를 둔 멸균 로봇 전문업체 '다이머UVC이노베이션스(Dimer UVC Innovations)'는 LA 국제공항과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 뉴욕 JFK 국제공항 등에 항공기 소독 로봇 '젬 팔콘(GermFalcon)'을 무상으로 제공하

덴마크 UVD 자율주행하며 소독

中 첸시로보틱케이터링 로봇  
15분마다 36인분 식사 만들어

고 있다. 이 로봇은 자외선(UVC)을 이용해 항공기 내 객실과 조리실, 승무원 탑승 공간 등의 세균과 바이러스를 살균한다.

우한시 거리에서는 살균제를 배포하거나 의료진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등 로봇이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

중국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 컨트리가든의 자회사인 첸시로보틱케이터링은 코로나19와 매일 전쟁을 벌이는 우한의 의료진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로봇을 기증했다. 이 로봇이 있는 식당은 24시간 운영되며 15분마다 36인분의 식사를 만들어낼 수 있다.

첸시로보틱은 "로봇 시스템은 어떤 시간에라도 음식을 제공할 수 있어 불규칙하게 식사할 수밖에 없는 의료진의 고민을 해결

해준다"며 "또 요리에서 서빙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이 자동화돼 있어서 인간 접촉이 없다. 이는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줄여준다"고 설명했다.

덴마크 UVD로봇은 코로나19 대책으로 자외선 살균 로봇을 중국 병원에 판매하고 있다. 이 로봇은 자율주행하면서 실내와 공기 중의 바이러스와 세균을 자외선으로 살균 소독하는 기능을 갖췄다.

이스라엘 스타트업 로보테미가 개발한 로봇 비서 테미(Temi)는 노인들의 말벗을 하거나 바쁜 기업인의 일상을 돋는 용도로 개발됐으나 코로나19에 그 용도가 더욱 확대됐다. 로보테미는 이 로봇에 온도계와 열화상카메라, 심지어 직원들이 손을 씻을 수 있는 싱크대까지 부착하기로 했다.

홍콩과 중국 본토는 물론 한국에서도 이 로봇이 배치돼 요양원 등에서 노인들이 가족과 화상 통화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재미 공감 위로

BRAVO  
My Life  
브라보, 함께해요!  
삶이 달라집니다!

정기구독 안내 | 1년 정기구독료 10만 원(우편발송료 무료), 날권은 1만 원  
정기구독 신청 및 구독 문의 | TEL (02) 799-2680 FAX (02) 799-6700  
이메일 bokyeong@etoday.co.kr 홈페이지 구독신청 bravo.etoday.co.kr

브라보 챔챔 TV  
시니어만을 위한 소통 공간!  
'브라보 마이 라이프'가 준비한 다양한 영상 콘텐츠들을 유튜브 채널 브라보 챔챔 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유튜브 검색창에 브라보 챔챔 TV)

구독 문의 (02) 799-2680

&lt;금융감독원장&gt;

# ‘키코 배상안’ 반기 든 은행들… 난감해진 윤석현

신한·하나·대구, 수락 기한 재연장  
우리, 유일하게 피해 배상 마무리

소멸시효 지나 경영진 배임 우려  
산업·씨티, 권고안 불수용 결정

은행권이 금융감독원이 권고한 키코 (KIKO, 통화옵션계약) 분쟁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거나 수락 여부 시한을 수차례 미루는 등 배상 거부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키코 배상 추진에 앞장섰던 윤석현 금감원장이 난감한 처지에 놓였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키코 분쟁조정안을 수용한 은행은 6개 은행 중 우리은행 단 한 곳뿐이다. 나머지 5개 은행 중 3곳은 답변 기한을 3차례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고, 나머지 2곳은 금감원 배상권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한은행은 6일 긴급 이사회를 열어 키



코 관련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이사 전원 동의를 얻지 못해 이사회 개최가 불발됐다. 이에 따라 신한은행은 금감원에 키코 배상 분쟁조정안의 수락 기한 재연장을 요청했다.

전날 하나은행과 대구은행도 재연장을

요청했다. 하나은행은 키코 배상 관련 추가 사실 확인 및 법률 검토를 통한 신중한 판단과 차기 이사회 일정을 감안해야 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대구은행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이사회 개최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달라면서

재연장을 요청했다.

금감원은 이들 은행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새로운 수락 시한은 1개월 후인 내달 6일까지다. 수락 시한 연장은 이번이 세 번째다.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해 말 신한·우리·산업·하나·대구·씨티 등 6개 은행에 키코 피해 기업 4곳에 피해금액의 15~41%를 배상할 것을 권고했다. 배상액은 △신한은행 150억 원 △우리은행 42억 원 △산업은행 28억 원 △하나은행 18억 원 △대구은행 11억 원 △씨티은행 6억 원 순이었다.

또 나머지 145개 피해 기업에 대해선 분쟁

조정 결과를 바탕으로 은행의 자율조정

(협의 권고)을 의뢰했다.

이 중 우리은행이 유일하게 금감원의 요구를 수리해 배상을 마쳤다. 반면 산업은행과 씨티은행은 배상 권고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의견을 전달했다. 소멸시효가 지나 법적 책임이 없는 사건을 배상할 경우 경영진이 배임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는 이

유에서다.

이처럼 은행들이 키코 배상안에 회의적 인 입장을 보이면서 윤석현 금감원장이 난처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감원 분조위는 ‘권고기구’일 뿐 법적인 강제성이 없다. 양측이 모두 받아들여야만 효력을 갖는다. 키코 피해 복구는 윤 원장이 취임 전부터 내세웠던 대표적인 정책이다.

분쟁 조정안 수락 기한 재연장을 요청한 신한·하나·DGB대구은행이 한 달 후에 수용 거부 입장을 밝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민법상 소멸시효가 지나서 배상을 하게 되면 주주의 이익을 해하는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는데도 금감원이 무리하게 밀어붙였다”며 “4개 피해 기업에 대해 분조위 권고를 수용할 경우 추가로 145개 기업에 약 2000억 원을 더 배상해야 하는 만큼 부담이 크다”고 설명했다.

김범근 기자 nova@

## 조용병 회장 “TK 피해 맞춤형 지원 총력”

### 신한금융 ‘코로나 극복’ 회의

신한금융그룹이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본 대구·경북 지역을 총력 지원한다. 신한은행은 의료 종사자 대출 우대금리 적용과 대구·경북 지역 은행 소유 건물 임대료 면제 등 실질적인 지원을 할 방침이다.

신한금융그룹은 6일 조용병 회장과 주요 그룹사 임원진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 지원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대구와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을 점검하고, 일선 근무 중인 직원과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

### 의료종사자 대출 우대금리 적용 은행 소유 건물 임대료 면제

인을 돋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조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현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계열사 간 소통을 당부했다. 조 회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환자와 가족, 지역 소상공인, 코로나19와 싸우고 계신 의료진들께 조금이나마 힘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후 조 회장은 대구와 경북 지역 은행 본부장, 카드 지점장의 지역사회 현장을 보고를 듣고 현황을 파악했다.

아울러 조 회장은 “지금과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는 본점과 영업점뿐만 아니라 지역 내 그룹사 간 긴밀한 소통이 중요하다”며 “개별 그룹사가 아닌 ‘원(One) 신한’ 관점에서 고객 응대를 빈틈없이 하고 본인과 가족, 직원들의 건강도 꼭챙겨달라”고 밝혔다. 회의에 참석한 경영진에게는 “현장의 목소리에 빠르게 화답하고 기존 업무 프로세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한금융그룹 계열사는 일제히 코로나19 지원책을 내놨다. 먼저, 신한은행은 의료진을 대상으로 특별금리 대출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대구와 경북지역 은행 소유 건물 월 임대료 전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신한금융지주 본사 이사회 회의실에서 화상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 신한금융그룹

액을 면제한다. 신한카드는 코로나19 피해 고객의 결제대금 청구를 6개월간 유예한다.

또 신한금투는 대구와 경북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자금조달 컨설팅을 진행하고, 신한생명은 코로나19 피해고객 대상 보험료 대출원리금 납입을 유예한다. 대전과 충남 천안지역 확진자가 증가하면 천안에 있는 연수원을 의료공간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정용욱 기자 dragon@

작년 가계신용대출 평균금리 18%  
고금리대출 비중 18%P 줄어 27%

지난해 가계신용대출 평균금리가 신규 취급과 잔액기준 모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금융감독원은 금리 수준은 여전히 높은 상태이며, 대출금리 합리화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8일 금감원에 따르면 가계신용대출 평균금리는 신규기준 18%로 2018년 12월 (19.3%) 대비 1.3%포인트(P) 하락했다. 같은 기간 잔액기준은 9.4%로 2018년 말(21%) 대비 1.6%P 내려갔다.

전체 가계신용대출 대비 고금리대출 비중은 하락 추세로 조사됐다. 작년 12월 중 신규취급 기준 고금리대출 비중은 26.9%로 전년(45.2%) 대비 18.3%P 하락했다.

동기간 잔액기준은 42.5%(6조4000억 원)로 전년 말(56.9%) 대비 14.4%P 줄어들었다.

서지연 기자 sjy@

www.douzone.com

## 인공지능 ERP 업무를 스스로 처리하다!

더존 iCUBE가 더욱 스마트해졌습니다.

클라우드 인프라와 빅데이터 처리기술,  
기계학습 방법론 및 딥러닝 응용 알고리즘을 구현한  
인공지능 ERP, 더존 iCUBE

기업의 업무는 이제 국내 유일 인공지능 ERP, 더존 iCUBE에 맡기십시오.



### 기업용 ERP



### 비영리법인 및 공공기관용 ERP





Powered by Innovation

전세계 어디서든

장비의 위치와 상태, 가동 현황을 파악해

관리와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기술

DoosanCONNECT™의 스마트 기술로  
더 큰 미래를 열어갑니다

## 인프라에 스마트를 더하다

### 두산인프라코어

장비위치정보  
강원도 삼척

소모품 교체 알림  
엔진오일필터 (3일)

평균 연비  
21.8 L/hr (지역 평균 24.3 L/hr)



# “매출 없으면 정부 지원도 제외” 두 번 우는 기업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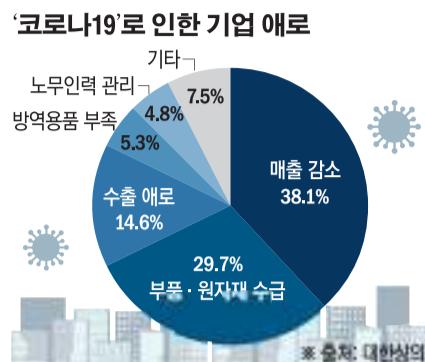
## ‘코로나 애로사항’ 봇물

외식·숙박·항공업계 가장 피해  
세제 등 금전적 지원 요청 60%  
중국 경기둔화로 수출 악화 분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라 수출 부진, 자금 경색 등의 긴 박한 중대 위기에 직면한 산업계가 정부에 긴급 지원책을 요청했다.

향후 수출 경기가 더욱 악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산업계는 존립 기반마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8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대한상의 코로나19 대책반’에 접수된 기업 애로 사항이 6일 기준 총 357건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대책반’은 대한상의 홈페이지와 전국 73개 지역상의, 서울의 25개 구별 상공회, 업종별 협회를 중심으로 기업현장



의 피해와 애로사항을 접수해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에 1일 단위로 전달하고 있다.

기업들이 가장 많이 겪는 어려움은 ‘매출 감소’(38.1%)로 조사됐다. 이어 ‘부품·원자재 수급’(29.7%), ‘수출애로’(14.6%), ‘방역용품 부족’(5.3%), ‘노무인력 관리’(4.8%) 등이었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은 중국과 거래 관계가 많고 공단·제조업 밀집지역인 경기·

경남·경북 등을 중심으로 매출감소, 원자재 조달 애로를 호소하는 기업들이 많았다. 서비스업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으로 생존까지 위협받는 상황으로 조사됐다. 외부활동을 꺼리고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도소매, 음식·숙박업 등 내수·관광업종을 중심으로 매출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시산업과 항공운수업은 전시회 개최와 항공 이용객이 90% 가까이 줄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외부활동 자체와 계속된 개학 연기에 따라 소매유통업, 학원 등의 업종도 타격도 컸다. 그러나 상황이 나아진다는 보장도 없다. 코로나19에 따른 중국 경기 불황으로 우리나라 수출 경기가 악화할 가능성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의 ‘2020년 국내 수출의 주요 이슈’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경기둔화는 중국 의존도가 높은 국내 수출 경기의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

다. 실제 우리나라 총수출에서 중국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10.7%에서 2019년 25.1%까지 상승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중국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할 시, 한국의 대중국 수출 증가율은 최대 0.8%포인트 떨어진다”고 분석했다.

코로나19로 의해 악화된 글로벌 가치사슬 또한 우리나라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대외 리스크 조기 경보 시스템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수출 경기 부양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코로나19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 되자 기업들은 정부에 ‘자금 지원’(35.1%)은 물론 ‘마스크·세정제 등 방역 용품 지원’(18.8%), ‘세금감면·세무조사 연기 등 세제·세정 지원’(13.4%), ‘고용유지 지원’(10.9%), ‘노동·환경 등 규제완화’(6.4%) 등을 요청했다.

자금 지원, 세제·세정 지원, 고용유지 지원 등 금전적 지원을 요청한 사항이 60%에 달할 정도로 많아, 코로나19 사태가 수출 문제를 넘어 소상공인과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은 정부 대책이 나온 경우에도 실제로 기업이 지원받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지원요건 하들이 높은 점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 추진으로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학교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부산 소재의 요식업체는 개학 연기로 3월 매출에 큰 타격을 입어, 긴급경영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 문의했으나 매출이 없으면 기업활동이 없는 것으로 본다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서울에 있는 렌터카 업체는 업종 특성상 제1금융권 이용이 어려운데, 금융지원 정책은 제1금융권에 국한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상황이다. 김유진 기자 eugene@

## ‘한진 남매’ 이번엔 리베이트 공방

조현아 연합 “에어버스서 뒷돈”  
한진그룹 “조현아 측 거짓 주장  
당시 조원태 회장 입사도 안 해”

한진그룹이 조현아 주주연합의 에어버스 리베이트 수수 의혹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한진그룹은 8일 입장문을 내 “조현아 주주연합은 프랑스 경제법죄 전담 검찰의 ‘수사종결합의서’를 고등법원의 ‘판결문’이라고 거짓 주장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현아 주주연합이 제시한 문서는 검찰과 에어버스 사이에 체결된 사법적 공의 관련 합의서로 적시돼 있고, 파리고등법원에 제출해 유효함을 인정받은 합의서이기 때문에 객관적 증거에 기초한 재판의 판결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또 한진그룹은 “수사 진행 과정에서 프랑스 검찰과 에어버스로부터 어떠한 문의나 조사, 자료제출 요구도 없었다”며 “합의서는 에어버스에 대한 기소 면제를 목적으로 한 양자 간 합의일 뿐 제3자와의 사실관계에 대한 사법부 판단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합의서에서 리베이트 의혹 시기를 1996년부터 2000년 사이로 언급한 것도 정황상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조원태 회장은 2003년 한진그룹에 입사했기 때문에 전혀 모르는 사안이라는 것이다. 한진그룹은 “송금이 2010년 이후에 이뤄졌다고 언급돼 있는데 항공기 구매계약 시점과 송금이 이뤄졌다고 주장하는 시점 사이에 10년이

상의 틈이 있다는 것은 상식에서 벗어났다”고 주장했다. A330 도입계약 당시 조회장은 입사 이전이었지만, 조 전 부사장은 재직 중이었다.

또, 합의서상의 600만 달러는 에어버스가 자사의 연구·개발(R&D) 투자를 위해 미국 서던 캘리포니아대학교(USC)에 직접 기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진그룹은 “항공분야 신기술 개발 및 공항 연구를 통해 각 참여 기관의 연구·교육·공공서비스 기능을 발전시키기 위해 2013년 설립된 에어버스 기술연구소(AIER)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라고 밝혔다. 600만 달러(약 71억5000만 원) 기금은 에어버스, USC, 인하대, 항공대, 대한 항공 인사가 고루 참여하는 ‘운영 이사회’를 통해 운영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앞서 6일 조 전 부사장과 행동주의 사모 펀드 KCGI(일명 강성부 펀드), 반도건설로 구성된 한진그룹 정상화를 위한 주주연합은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한 항공의 리베이트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2차 성명서를 내고 “조원태 회장을 포함해 리베이트 사건에 관여한 임원들은 즉시 사퇴하고 한진칼의 새로운 이사 후보에 서도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3자연합은 “프랑스 고등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항공기 제조사 에어버스는 2010년 9월부터 세 차례에 걸친 리베이트로 최소 1450만 달러를 대한항공 측에 지급했다”며 “그중 세 번째 리베이트는 대한항공의 고위 임원이 사적으로 관련된 한국과 미국 교육 기관의 연구 프로젝트 비용으로 지급됐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 액자 대신 삼성 TV로 ‘내셔널지오그래픽 사진전’

삼성전자는 터키 이스탄불에서 세계적 명성의 다큐멘터리 잡지 내셔널지오그래픽(National Geographic)과 함께 ‘포토 아크(Photo Ark)’ 사진전을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포토아크는 ‘멸종 위기 동물을 보호하

자’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내셔널지오그래픽이 전 세계 주요 도시에서 개최해온 행사다. 미국 출신 사진작가 조엘 사토리(Joel Sartore)가 10여 년간 촬영한 작품들로 구성돼 있다.

이번 이스탄불 사진전은 4월 15일까지

진행되며, 삼성전자의 대표적 라이프스타일 TV인 ‘더 프레임(The Frame)’, ‘더 세리프(The Serif)’를 통해 다양한 멸종 위기 동물들의 모습을 관람객들에게 생생하게 전달할 예정이다.

더 프레임은 TV를 시청하지 않을 때 미술 작품이나 사진을 액자처럼 보여 주는 신개념 TV이며, 더 세리프는 공간 인테리어에 최적화된 TV다. 송영록 기자 syr@

## 삼성 ‘8K 대중화’ 동분서주…동맹·콘텐츠 확대

### 8K 협의체 회원사 23개 확대 유로파리그 실시간 송출 시연 '갤S20' 8K 촬영 기능 탑재도

삼성전자가 8K(7680×4320) TV 대중화를 앞당기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작년 1월 8K 생태계 조성을 위해 설립한 ‘8K 협의체(Association)’ 규모를 계속 키우고, 스마트폰 사업부와 협력해 8K 콘텐츠를 확대하고 있다.

8K TV 시장이 예상과 달리 더딘 성장을 보인 만큼, 삼성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업체와의 협업을 전개할 예정이다.

8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8K 협의체에 최근 독일의 비디오·오디오 코덱 개발업체인 메인콘셉트(MAINCONCEPT)가 합류했다. 메인콘셉트의 참여로 8K 협의체 회원사는 23개로 늘어났다.

8K 협의체는 회원사별 협력 수준에 따라 △이사회 멤버 △주요 멤버 △협력 멤

버 △서포트 멤버 등으로 구성된다. 메인콘셉트는 가장 낮은 단계인 서포트 멤버로 가입했다.

8K 생태계를 마련하기 위한 삼성전자의 노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오랫동안 지적됐던 8K 콘텐츠 부족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삼성 IM(IT·모바일) 사업부와 협업을 이어가고 있다.

삼성이 지난달 공개한 스마트폰 갤럭시 S20은 8K 화질의 동영상 촬영이 가능하다. 갤럭시 S20을 통해 찍은 영상은 삼성 QLED 8K TV로 볼 수 있다.

미디어 관련 업체와의 협력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영국 BT스포츠와 함께 최근 아스날과 올림피아코스의 UEFA 유로파리그 경기를 8K 카메라로 촬영하고, 삼성 QLED 8K TV로 실시간 송출하는 시연을 성공리에 마쳤다. 양사는 이번 시연을 시작으로 8K 스포츠 중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작년 7월에는 KT스카이라이프와 함께 8K 위성 방송 송수신을 진행했다. 같은 해 5월에는 루셈부르크에서 유럽 위성방송 사업자 SES 아스트라와 유럽 최초로 8K 위성 방송 송수신 시연을 했다.

삼성전자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8K TV 시장 규모를 키운다는 전략이다. 8K TV는 4K 제품과 비교했을 때 4배 이상의 화질을 자랑하지만, 지난해 저조한 판매량을 기록했다.

시장조사업체 IHS마킷에 따르면 작년 8K TV 시장 규모는 11만8530대다. 전년(1만8550대) 대비 6배 이상 성장했지만, 지난해 11월 IHS마킷이 예상한 시장 규모인 12만3000대와 비교했을 때 적은 수치다. 올해는 주요 가전업체들의 본격적인 8K TV 출시로 시장 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업체 간 경쟁이 시작되면 현재 1000만 원이 넘는 8K TV 가격 또한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 LG 매장서 ‘리얼 8K’ 손흥민 경기영상 시연

LG전자가 영국에서 최고 인기 스포츠인 축구를 활용한 마케팅으로 ‘리얼 8K’ TV의 우수성을 알린다.

LG전자는 영국 유명 프로축구팀 ‘토트넘 히스파 FC(이하 토트넘)’과 협업해 8K 해상도로 촬영한 경기 하이라이트 영상을 매장에 전시한 8K TV로 시연한다고 8일 밝혔다.

총 75초 분량의 영상은 토트넘 주전 공격수로 활약 중인 우리나라 선수의 드镇党委 있다. 영국 유명 스포츠 프로듀서인

‘매트 럼지(Matt Rumsey)’와 영상 콘텐츠 마케팅 업체 ‘슛미디어(ShootMedia)’가 제작을 맡았다. 런던을 연고지로 한 토트넘은 올해 창단 138주년을 맞은 명문 구단으로, 현지 최고 인기 구단 가운데 하나로 뿐 아니라 국내 인지도도 높다. LG전자는 ‘LG 시그니처 올레드 8K(모델명: 88/77ZX)’와 ‘LG 나노셀 8K(모델명: 75/65Nano99)’로 이 영상을 독점 시연한다. 국내 매장에서도 8K TV 시연 영상으로 활용한다. 송영록 기자 syr@

# 정의선 “美 고객 눈으로 보라”…텔루라이드 7만대 돌풍

## 출시 1주년 ‘현지화 전략’ 결실

각진 외형·넉넉한 실내 공간…북미 올해의 SUV  
기아 月 판매량 20% 늘어 年 10만대로 생산 확대



미국 출시 1주년을 맞은 대형 SUV 텔루라이드가 누적 판매 7만 대를 넘어서며 기대 이상의 인기를 끌고 있다. 텔루라이드는 기아차의 미국 판매 성장뿐 아니라 수익성 개선까지 이끌고 있는데,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의 ‘현지화’ 전략이 결실을 맺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8일 차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미국 조지아 공장에서 생산을 시작한 북미 시장 전용 SUV 텔루라이드가 19일로 공식 출시 1주년을 맞는다.

텔루라이드는 지난 1년간 총 7만277대 판매되며 현지 소비자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출시 직후부터 월평균 5000대 이상 씩 팔린 셈이다. 현재 미국에서는 딜러의 소매 재고가 부족해 ‘없어서 못 파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판매 제품군에 텔루라이드가 포함된 뒤 기아차의 미국 판매 실적은 큰 폭으로 늘었다. 기아차는 지난달 미국에서 전년 대비 20% 늘어난 5만2177대를 판매했다. GM과 토요타 등 미국 점유율 상위 10개 브랜드 중 월 판매량이 20% 넘게 늘어난 곳은 기아차가 유일했다.

텔루라이드는 기아차의 판매 성장세를 지속해 견인하며 현지 법인의 수익성 개선까지 이끌 것으로 보인다. 기아차는 미국에 KMA (Kia Motors America, Inc.) 와 KMMG (Kia Motors Manufacturing Georgia, Inc.) 두 개의 종속법인을 두고 있는데, 이들은 지난해 3분기 기준 각각 100억 원, 1732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대형 SUV는 세단보다 평균 판매단가(ASP)가 높은 만큼, 텔루라이드의 흥행이 지속되면 향후 매출 확대와 손익 개선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전망이다.

텔루라이드의 흥행은 기아차가 추구한 철저한 현지화 전략이 통한 결과로 분석된다. 기아차는 2015년 텔루라이드 개발을 시작하며 디자인과 실내 구성을 모든 부

분을 미국 소비자의 취향에 맞도록 제작하는데 중점을 뒀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은 당시 “우리 눈이 아니라 미국 고객 눈으로 보라”는 조언을 실무진에 전하기도 했다.

그 결과 텔루라이드는 전형적인 미국형 SUV처럼 웅장하고 각진 외형으로 탄생

했다. 5m에 달하는 길이(전장)를 바탕으로 최대 8명을 태우도록 설계됐고, 미국인의 체형을 고려해 버튼도 큼직하게 만들었다.

상대적으로 연비를 중시하는 국내 소비자에게 맞게 현대차 팰리세이드가 2.2 디젤 모델을 함께 선보인 것과 달리, 텔루라이드는 3.8리터 가솔린 엔진 한 모델만 출시한 점도 대비된다.

텔루라이드의 인기는 판매 실적뿐 아니라 각종 수상 실적으로도 증명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텔루라이드는 미국의 권위 있는 자동차 전문지 모터트렌드가 선정한 ‘2020년 올해의 SUV’로 선정됐다. 모터트렌드는 1999년 이후 21년 동안 매년 이상을 수여했는데, 한국차가 이상을 받은 건 처음이다.

올 1월에는 자동차 업계의 오스카상으로 불리는 ‘북미 올해의 차’ SUV 부문을 차지했다.

기아차는 미국 현지의 텔루라이드 수요를 맞추기 위해 현재 연간 8만 대 수준의 생산량을 올해 7월 10만 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유창욱 기자 woogi@

## 원사 접은 코오롱머티리얼, IT 소재 강화

### 그룹 모태 ‘원사’ 900억 적자 IT소재·원단으로 조직 개편 스마트폰 방수용 ‘벤트’ 육성

코오롱그룹의 모태사업인 원사 사업을 접은 코오롱머티리얼이 본격적으로 IT소재 사업을 강화한다.

8일 코오롱머티리얼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조직도에 IT소재사업부가 신설됐다.

기준에는 원사 사업을 담당하는 사업1 본부와 원단 사업을 맡는 사업2본부로 사업부서가 나뉘어 있었지만, 원사 사업을 정리하면서 조직 재편에 나선 것이다.

앞서 코오롱머티리얼은 지난해 6월 적자가 누적된 원사 사업부문의 영업을 정지했다. 2018년 기준 원사 사업의 매출액은 2927억 원으로, 총 매출의 75.4%에 달할 정도로 회사의 주축이지만, 중국산 원사 제품이 시장을 잠식하면서 최근 5년간 누적 적자가 900억 원에 이르자 중단을 결정했다.

당시 회사 측은 “사업환경과 사업실적의 지속적 악화에 따른 사업 중단”이라며 “사업구조 개편을 통한 텁어라운드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코오롱머티리얼은 조직을 원단사업부와 IT소재사업부를 중심으로 개편했다. 연구 조직 역시 기준에는 최고경영자(CEO) 직속이었지만, 원단 및 IT소

재사업부 밑으로 배치했다. 코오롱머티리얼이 이 같은 조직 개편을 실시한 것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IT소재를 육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코오롱머티리얼은 독자적 제조기술로 개발한 나노 멤브레인 사업을 통해 IT·모바일부터 에너지·환경 산업분야까지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전자제품에 대해 방수, 방진 기능을 갖춘 ‘벤트(neoVENT-SW)’ 제품을 개발,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방수자재로 승인을 취득하며 글로벌 스마트폰 제조사 등에 공급하고 있다.

코오롱머티리얼의 벤트 제품은 △어쿠스틱 벤트(Acoustic Vent) △에어 벤트(Air Vent)로 구성된다.

어쿠스틱 벤트는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의 마이크, 스피커 등에 적용돼 방수, 방진, 통음 기능을 제공한다. 에어 벤트는 전자기기의 압력 평형은 유지시켜주면서 물의 유입은 막아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 전자 제품 침수와 각종 먼지의 유입을 방지한다.

코오롱머티리얼은 중장기적으로는 음성 인식에 기반하는 각종 전자제품 등 전자산업분야와 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에 벤트가 적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향후 방수·방진 기능을 필요로 하는 각종 전자기기, 의료기기 등과 자동차 전장부품 등 다양한 활용처를 발굴해 시장을 넓혀나갈 계획이다.

김유진 기자 eugene@

### 아이오닉 평생 배터리 보증 등 현대 전기차 ‘종합 케어’ 제공

현대자동차는 전기차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종합 케어(care) 프로그램인 ‘빌리브’(beliEVe)를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빌리브는 현대차 전기차 고객에게 제공되는 품질, 충전, 경제성 등과 관련한 다양한 혜택을 종합한 프로그램이다.

고전압 배터리 보증을 통해 아이오닉 일렉트릭 신차의 경우 평생 배터리 보증을, 2020 코나 일렉트릭은 10년·20만km 보증

을 하는 등 차종에 따라 최대 평생 보증 서비스를 제공한다.

구동모터, 감속기, 완속 충전기 등 전기차 전용 부품에 대해서도 차종별 무상 보증을 실시하고, 최대 8년 동안 연 1회 무상으로 차량 점검을 해준다.

고객들이 현대차 전기차 초고속 충전 설비인 ‘하이차저’(Hi-Charger)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충전소 위치와 혼잡 시간대 정보 등을 알려주며 충전비 지원 금융 프로그램과 찾아가는 충전 서비스 등도 제공한다.

유창욱 기자 woogi@



## Time is our tradition.

‘시간은 우리의 전통’(Time is our tradition)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1924년 탄생된 스위스 메이드 워치, 그로바나(GROVANA)의 모든 제품은 스위스 텐니켄(Tenniken)에 위치해 있는 자체 공장의 생산라인을 통해 수작업으로 조립되며 3년간의 국제보증서비스를 제공합니다.

KOI COMPANY Co., Ltd 02)6403-2112 www.grovana.co.kr



BELLEVILLE  
1766.1535

# “세계 최고 전기선박 기술력… 친환경 블루오션 개척”

## 인터뷰

## 원준희 LGM 대표

10년간 전기동력 추진기 기술 개발… 관련 특허만 24건  
‘5단계 안전시스템’ ‘카트리지 배터리’ 등 핵심 기술 보유  
‘친환경선박법’ 호재 수주 잇따라… 中·日 해외진출 박차

“아직까지는 생소한 분야지만 기술력으로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자부합니다. 올해부터는 국내·외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는 등 매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8일 수원에 있는 전기선박 개발 및 제조업체 엘지엠(LGM) 본사에서 만난 원준희 대표는 “창업 후 10년간 자체 기술을 확보하고 특허를 받는 등 기술개발에 전력해 왔고 올해는 본격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등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기선박은 아직까지는 생소한 분야다. 경유를 연료로 쓰던 기존의 선박과는 다르게 환경오염 우려가 없고 소음과 진동도 거의 없어 환경친화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분야다. 기존의 경유 선박을 대체할 유일한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유럽을 비롯해 일본 등 일부 아시아권 국가에서도 활발하게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2010년 창업한 LGM은 기술력이 좋다

고 인정받는 곳이다. 특히 LGM은 전지의 가장 기초단위인 배터리셀을 제외하고 추진체와 교체형 배터리팩, 전자제어장치 등 모든 부품을 직접 개발·제조하는 회사다. 회사의 전기 선박 관련 특허는 24건에 달한다. 원 대표는 “배터리셀 개발은 대규모 자본과 설비가 들기 때문에 벤처기업은 투자할 수 없는 분야”라며 “배터리셀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지식재산(IP)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LGM은 물 위에서 고전압을 사용하는 전기선박의 감전 위험을 제거한 5단계 안전시스템 및 ‘무감전 고출력 전기 추진체’와 쉽게 교체 및 확장할 수 있어 짧은 운항거리 문제도 극복한 ‘카트리지 배터리 시스템’을 핵심 기술로 보유하고 있다. 유럽의 기술을 능가한다는 평가를 받는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원 대표는 “우리의 주력상품인 중·고마력 전기동력 추진 선박이기를 상용화한 경쟁사는 독일과 오스트리아



원준희 LGM 대표는 수원 본사에서 가진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친환경 전기선박 기술력을 토대로 위축 국면인 국내 조선산업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싶다”고 말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업체 각각 1곳씩에 불과하다”고 자신했다.

원 대표는 창업 후 10년간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지기까지 기술개발에 주력해왔다. 전기자동차처럼 환경문제가 없는 선박에 수요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추진했다. 100% 수입에 의존하던 선박용 내연기관 추진기를 대체하는 전기동력추진기를 우리 기술로 만들어 보자는 생각을 했다는 것.

최근 국내에서도 변화가 나타나면서 회사는 호기를 맞고 있다. 작년 발효된 ‘친환경선박법’에 따라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

공기관, 지방 공기업은 2020년 1월 1일부터 공공선박을 모두 친환경 선박으로 구입하는 게 의무화됐기 때문. 해양수산부는 2030년까지 소속 관공선 140여 척을 모두 친환경 선박으로 대체하기 위한 ‘2030 친환경 관공선 전환계획’을 수립해 발표했다. 부산광역시는 정수장에서 쓰기 위해 공공기관 최초로 LGM에 전기선박용 추진기를 구매했다. 지난 1월 회사는 제주도 성산과 우도를 왕복하는 61억 원짜리 도항선을 수주하는 데도 성공했다. 300 t급으

로 승객 440명과 차량 28대를 수송할 수 있는 대형 선박이다. 원 대표는 “각 지자체에서 견적 등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며 “무소음·무진동 특성상 해병대 등 특수군에서 침투용 선박에 대한 문의도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LGM은 국내 어선시장도 주목하고 있다. 소음이 적고 연료효율이 좋기 때문에 어민들의 평가도 좋다. 원 대표는 “7만 5000대에 달하는 국내 어선들이 장기적으로는 전기선박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해외 진출도 모색하고 있다. LGM은 2019년 약 16억 원 규모의 중국 신장지구 유람선형 전기동력추진기 수출계약을 체결했고 일본에도 10대 수출을 협의 중이다. 원 대표는 “현지 인증이 진행되고 있어 4월에는 제품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호조로 회사는 최근 올해 수주 목표를 당초보다 2배 높은 120억 원으로 올려 잡았다. 이미 어선 15억 원을 포함, 75억 원어치를 수주했기 때문에 충분히 달성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원 대표는 “기술력을 토대로 위축 국면인 국내 조선산업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싶은 것이 꿈”이라고 강조했다.

수원=임기훈 기자 shagger1207@

## SK텔레콤 ‘아시아 게임서비스’ 시장 출사표

싱가포르·태국 1위 통신사와  
게임 플랫폼 합작회사 설립  
글로벌 게임 커뮤니티 구축  
e스포츠 VR 생중계 등 추진



박정호(오른쪽 두 번째) SK텔레콤 사장이 싱텔, AIS와 화상회의를 통해 합작회사 설립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제공 SK텔레콤

게임·e스포츠를 신사업으로 추진 중인 SK텔레콤이 동남아시아를 포함한 아시아·태평양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한다. 막강한 우군과 함께 한국 e스포츠, 게임을 세계로 전파하는 힘으로 개척한다.

SK텔레콤과 싱가포르, 태국 1위 통신사 싱텔, AIS는 아시아 주요 지역에 8억 명의 게이머를 대상으로 신사업을 추진하는 ‘게임 플랫폼 합작회사’ 설립 계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3사는 동일한 금액을 투자하고, 합작회사에 대한 지분과 권리도 3분의 1씩 갖기로 합의했다. 서비스 출시는 연내를 목표로 한다. 합작회사 설립은 지난해 2월 SK텔레콤과 싱텔이 체결한 ‘e스포츠·게임 공동 사업’ 파트너십의 후속 결과물이다. SK텔레콤은 세계 21개국에

서 사업을 추진 중인 싱텔에 이어 태국 최대 통신사 AIS를 사업 파트너로 초대해 아시아 주요 지역에 신사업 전초기지를 확보하게 됐다.

SK텔레콤, 싱텔, AIS는 다른 기업보다 앞서 게임 서비스·e스포츠를 신사업으로 주목하고 장기간 준비해온 공통 분모를 갖고 있다. 각국을 대표하는 통신사들이 이례적으로 이동통신이 아닌 신사업으로 손을 맞잡을 수 있었던 이유다.

3사는 합작회사를 통해 △게이머 대상 전문 커뮤니티 △e스포츠 연계 사업 △게임 미디어 콘텐츠 사업 등을 우선

추진한다. 게임을 직접 개발하기보다는 ‘보는 게임’ 등 게임 플레이 외적으로 새로운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가장 먼저 추진하는 서비스는 글로벌 게임 커뮤니티다. 게임 커뮤니티는 게임이라는 공통 관심사를 기반으로 고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소통 공간으로, 최근 국가별로 대표 사이트가 속속 등장하는 등 게임산업의 키리 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다. 월 1억 5000만 명이 방문하는 스팀커뮤니티(미국·유럽)나 게임스팟(미국), 루리웹(한국) 등은 전

세계 방문자 상위 1000대 사이트에 포함된다.

3사는 국경과 장르를 넘어 게이머들이 교류할 수 있는 전문 커뮤니티를 구축하고, 이를 허브(Hub)로 삼아 다른 연계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전 세계 2억 명이 즐겨 시청하며, 2022년 3조 5000억 원 시장으로 예상되는 e스포츠도 합작회사의 핵심 사업 영역이다.

3사는 e스포츠 산업 내 각자의 위상을 활용한 다양한 연계 사업을 모색할 예정이다. 5G를 통해 e스포츠 경기를 VR(가상현실) 생중계를 하거나 여러 프로게이머 시야를 멀티뷰로 중계하는 등 한국에서 상용화된 다양한 방식을 해외 팬들에게도 제공 가능하다.

박 사장은 CEO들에게 “글로벌 유력 회사들이 힘을 모아 세계 경제에 활력을 높이는 것이 글로벌 위기를 빠르게 극복하는 해법이 될 수 있다”며 “이번 위기를 사회 진화 계기로 전환할 수 있도록 5G·AI 등 첨단 ICT를 활용한 슬기로운 협력을 함께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이재훈 기자 yes@

## 삼성SDS, ABL생명과 클라우드 전환 사업 계약

삼성SDS는 ABL생명과 데이터센터 이전 및 클라우드 전환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ABL생명은 글로벌 금융 노하우와 전국적 영업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115만 명의 고객들에게 다양한 보험 상품과 전문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명보험사다.

삼성SDS는 이번 계약으로 ABL생명의 IT 인프라를 삼성SDS 상암, 춘천 데이터센터로 이전해 앞으로 5년간 최신 IT 기술을 기반으로 통합 운영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ABL생명의 클라우드 기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한 컨설팅을 수행하고, ABL생명의 대고객 서비스를 중심으로 클라우드 전환을 할 계획이다.

현재 삼성SDS는 전 세계 18개 데이터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자, 제조, 금융, 물류 등 다양한 업종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조성준 기자 tiatio@

## ‘헬로tv’ 전 채널 풀HD 전환

LG헬로비전이 이달부터 헬로tv의 모든 실시간 채널의 화질을 풀HD(고해상도)로 업그레이드하며 방송 경쟁력을 강화했다고 8일 밝혔다. 표준해상도(SD)로 제공되던 채널들을 풀HD로 전환해 헬로tv의 풀HD 채널 비율을 100%로 확대했다.

이달부터 헬로tv 디지털방송 가입자는 모든 실시간 채널을 풀HD로 시청할 수 있다. LG헬로비전은 표준해상도(SD)로 송출되던 일부 채널의 화질을 개선해 풀HD 채널 비율을 기존 78%에서 100%로 확대했다.

특히 LG헬로비전은 전체 23개 권역에서 동시에 화질 개선을 완료하며, MSO(복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가운데 최초로 전 채널 풀HD 방송을 서비스하게 됐다. 이번 화질 개선은 완전한 디지털 케이블 방송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이재훈 기자 yes@

## 네이버, 중소상공인에 ‘비대면 판매’ 기술 지원

‘라이브 커머스 틀’ 제공… 라이브 영상 통해 상품 소개

네이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장기화로 비대면 소비가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중소상공인을 위한 기술 지원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네이버쇼핑은 오프라인 매장 상품을 실시간 라이브 영상으로 소개하는 ‘라이브 커머스 틀’ 기능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 교육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등 다양한 기술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네이버쇼핑은 모든 스마트스토어 판매자들에게 ‘라이브 커머스 틀’을 이달 내 제공한다.

라이브 커머스 틀은 오프라인 판매자들이 실시간 라이브 영상을 통해 상품을 소개할 수 있는 기능이다. 고객과의 실시간 채팅은 물론 상품 사전 태깅, URL 공유 기능 등도 가능하다. 고객은 매장에 방문할 필요 없이 상품 전문가와의 실시간 채팅을 통해 상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판매자는 고객 접점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네이버쇼핑 서비스를 담당하는 이윤숙 포레스트 CIC 대표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소비와 원격 근무가 확산되는 추세 속에서 네이버의 기술과 플랫폼을 바탕으로 중소상공인의 매출 향상을 이끌 지원책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판매자의 사업 운영에 도움이 되고 시장 활력 회복에 도움이 될 기술 지원을 적극적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준 기자 tiatio@



# 고객 발길 줄어든 대형마트 “온라인몰이 효자”

이마트 1분기 매출 1.3% 성장  
쓱닷컴 선방 할인점 충격 완화

이커머스 상품 품절 잇따르자  
대형마트 온라인몰 ‘반사이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언택트 소비가 확산됐지만 대형마트 매출이 의외로 선전하고 있다. 이는 대형마트가 운영하는 자체 온라인몰에 수요가 몰리면서 오프라인 매출 감소를 어느 정도 상쇄하기 때문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하나금융투자는 올해 1분기 이마트의 매출 추정치를 4조6460억 원으로 전망했다. 이는 전년 동기(4조5850억 원)에 비해 1.3% 늘어난 수준이다. 세부적으로는 할인점인 오프라인 이마트 매출은 1% 줄지만, SSG닷컴은 25% 증가할 것으로 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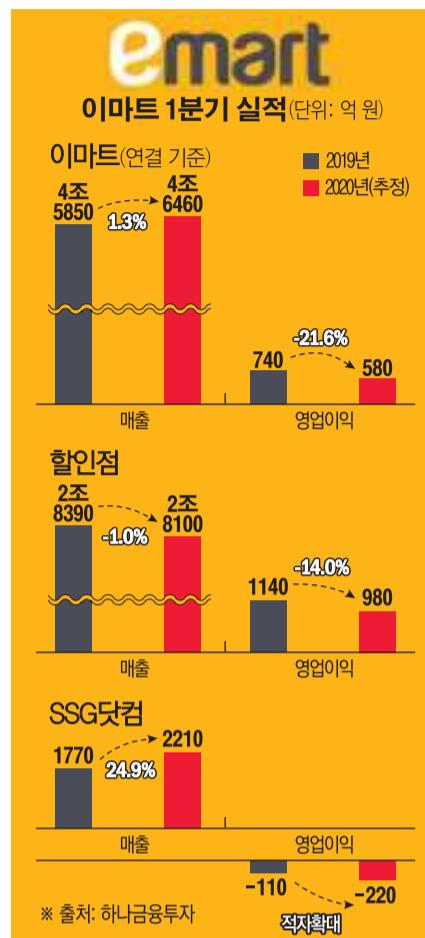
특히 코로나19가 직격탄을 날린 1~2월 할인점의 기준점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 수준으로 전망될 것으로 예상했다.

확진자가 다녀가면서 이마트 성수점과 군산점, 마포점 등 일부 점포가 줄줄이 휴점하는 상황에서 대형마트들은 이례적인 매출 방어에 성공했다. 메르스 사태 당시 다중집객시설을 기피하면서 2015년 6월의 대형마트 매출은 전년 대비 10.2% 전월 대비 16% 하락한 바 있다.

다른 오프라인 채널이 코로나19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과도 대비된다. 롯데백화점의 경우 2월 1일부터 23일까지 전체 매출은 20% 축소됐고, 신세계백화점의 2월 1일부터 25일까지 매출은 15.8%, 현대백화점은 12.1% 감소했다. 면세점 매출은 1월 3주째 전년 동기 대비 14.3% 줄어든 것을 시작으로 4주째는 23.4%, 2월 1주차 42%, 2주 차 38.4%, 3주 차 40.4%로 낙폭이 확대되고 있다.

외출 공포에 언택트 소비가 확산되면서 소비자들이 이커머스로 눈을 돌렸지만, 잇단 품절 사태에 다시 대형마트 온라인몰로 수요가 몰리는 상황이다.

실제 생필품이나 신선식품 재고 확보에 비상이 걸린 이커머스 업계와는 달리 대형마트의 경우 재고가 충분하다. 문제는 배달 인프라다. 실제 SSG닷컴의 예약주문 배송인 ‘쓱배송’의 주문 마감률은 80% 수준에서 최근 99.8%까지 치솟았다. 2월 흠플러스 온라인몰 신선식품 매출도 전년 대비 143% 신장했다. 롯데마트와 흠플러스도 배송 물량을 각각 20%씩 늘려 대응하



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코로나19가 재확산된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4일까지 SSG닷컴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71.2% 신장했다. 증권업계에서 예상하는 SSG닷컴의 1~2월 전체 매출 신장률은 약 30%다.

SSG닷컴 매출 가운데 이마트몰의 비중은 50%다. 이 중에서 오프라인 지점을 활용한 PP(Picking & Packing)센터 매출은 오프라인 할인점 실적으로 접히는데, 30% 매출이 늘어날 경우 기준점 매출을 2%P(포인트) 끌어올리는 효과를 낸다.

생필품 수요 증가는 대형마트 점포의 매출까지 견인하고 있다. 실제 이마트의 지난달 19일부터 25일까지 생필품 판매량은 전년 같은 기간(2019년 2월 20~26일) 대비 최대 75%가량 늘었고, 롯데마트의 컵밥 판매량은 100.3% 뛰었다.

다만, 최근 많이 팔리는 생필품의 경우 매출은 끌어올리지만, 마진이 적어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시각이 있다. 반면 온라인몰 차량 1대당 배송 물량이 증가하면서 오히려 효율성이 개선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하나금투는 지난 1분기 이마트의 연결 영업이익 증감률을 지난해 1분기(-51.9%)에 비해 낙폭을 줄인 -21.6%로 전망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대형마트의 온라인몰이 인기를 끌면서 쿠션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남주현 기자 jooh@

## 이마트24에서 스무디킹도 맛보세요

‘1매장 2가맹’ 혁신 모델

이마트24는 스무디킹과의 협의를 통해 카운터 내 공간에서 스무디킹을 제조·판매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해 가맹점 지원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이마트24×스무디킹’ 모델은 한 경영주가 이마트24 가맹계약과는 별개로 스무디킹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별도 스무디킹 매장을 오픈하는데 발생하는 투자금을 줄이면서 추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마트24는 스무디킹 모델을 비롯해 월회비, 조건 없는 24시간 미영업(전체 점포의 80%가 심야 미영업), 카테고리킬러 등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이마트24×스무디킹’ 모델의 최대 장점은 기존 이마트24의 카운터 공간을 활용



해 별도의 임차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또 스무디킹 단독 매장 대비 가맹비(교육비 포함)가 1% 수준이다. 이마트24 본사가 스무디킹에 선지급 후 월 10만 원씩 나눠 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박미선 기자 only@

## “코로나 신속진단키트 中·美서 주문 쇄도”

### 인터뷰

유재형 솔젠티 대표

한국 진단기술 세계서 주목

주당 10만 명 검사 분량 생산

국내외 진출 위해 밤샘 작업

코로나19로 전 세계 확진자가 10만 명을 돌파하면서 국내 진단키트 생산 기업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9 현황과 과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코로나19 검사 건수는 7만5792명(2일 기준)으로, 같은 시기 일본의 2517건, 미국의 472건을 압도한다.

정부의 긴급사용 승인을 받은 4개의 국내 분자진단 기업들(씨젠·솔젠티·SD바이오센서·코젠바이오텍)의 진단시약이 있었기에 가능한 수치다.

특히 지난달 27일 정부의 3차 공고를 통해 승인된 솔젠티는 지난 20년간 지카, 메르스, 노로바이러스 등의 진단키트를 개발해 온 기술력을 바탕으로 코로나바이러스 진단키트(디아플렉스Q 노를 코로나바이러스)를 생산했다. 이 키트는 채취된 샘플 추출 후 검사까지 약 1시간 45분이면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최근 유럽인증까지 획득했다. 또한 솔젠티는 자체 GMP 시설에서 핵심원재료(유전자증폭효소)를 직접 개발·생산하는 유일한 기업으로 시약 부족으로 인한 검사 지연이 일어날 우려가 적다.

8일 인천 송도에 위치한 솔젠티 관계사 이원다이아그로노믹스(EDGC) 사무실에서 만난 유재형 대표는 “현재 국내



유재형 솔젠티 대표는 “정부의 긴급사용 승인을 통해 코로나바이러스 진단키트를 개발, 비상생산체계를 가동해 주당 10만 명 검사 분량을 생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에선 6개의 종합병원과 2개의 대형검진

센터에 제품이 공급되고 있다”며 “하루에 200키트(2만 명)와 주당 10만 키트(10만 명) 검사 분량을 만들고 있으며 1억 개 이상을 만들 수 있는 원재료를 확보해 공급 지연이 없도록 비상생산체계를 가동 중”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간 높은 정확도(민감도+특이도)로 다양한 바이러스 키트 생산 능력을 전 세계에 알려왔던 솔젠티는 코로나19에서도 해외 각국의 진단시약 공급 요청으로 그 진가를 발휘하고 있다.

그는 “5일 중국 파트너사와 40만 명, 6일에는 미국, 중남미 파트너사와 21만 명 분량의 진단시약 공급계약을 체결해 약 80억 원 규모의 매출이 예상된다”며 “그 밖에 동남아, 중앙아시아, 중동, 유럽 국가들과 수백만테스트 제품공급을 위한 협상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솔젠티는 검사 키트 확보가 어려운 미국 시장 진출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회사는 △현지 식품의약청(FDA) 응급허가(EUCL) △CDC(질병통제예방센터) 납품 △진단 서비스 실시 전해당 CLIA Lab(연구소)에서 제품 검증 절차인 LDT(Lab development test) 참여 등 미국 시장 진입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 중이다.

유 대표는 바이오니아, 씨젠 등에서 연구소장을 지내며 25년간 분자진단 분야에 몸담았던 인물이다.

그는 “이번 국내 긴급사용허가 준비부터 현재 글로벌 시장 진출까지 7명의 직원들만이 투입돼 밤샘 작업으로 성과물을 만들어 내고 있다”며 “이번 코로나19를 계기로 글로벌 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K바이오 분자진단 시스템 완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이어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정확한 코로나19 진단키트의 기술을 보유한 한국 기업들에 대한 인식도 개선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노은희 기자 sell215@



### ‘국내산 생물 새우 1년 내내 만나세요’

8일 서울 등촌동 흠플러스 강서점에서 모델이 바이오플라 양식기술(BFT)로 키운 ‘국산 바이오플라 생물 새우’를 선보이고 있다. 흠플러스는 친환경 양식기술로 키운 국산 생물 새우를 연중 판매한다고 이날 밝혔다. 겨울철에 새우를 구매하려면 태국산 등 수입산이나 국산 낭동 새우에 의존했지만 흠플러스에서 1년 내내 국산 생물 새우를 구할 수 있게 됐다.

사진제공 흠플러스

## 코로나 공포에 라면 판매량 끌어올랐다

소비자 불안 확산 ‘사재기’ 열풍

라면 3사 1분기 ‘나란히 성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라면 3사의 매출을 견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유통업체가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장기 보관이 가능한 비상식량이라는 인식이 강한 라면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올 1분기 라면 3사

가 나란히 매출 성장을 이룰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8일 금융정보제공업체 애프엔기아드에 따르면 농심과 오뚜기, 삼양식품은 각각 1분기 매출액 6244억 원, 6154억 원, 1385억 원을 기록한 전망이다. 각각 전년 대비 6.08%, 3.13%, 15.03% 증가한 수치다.

내수 시장에서의 수요 증가가 매출 증가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하며 소비자 사이에

서 ‘라면 사재기’가 이뤄지면서 일부 유통채널에서는 품귀현상이 빚어지기도 했다.

반면 오뚜기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오뚜기는 3사 중 유일하게 전년 대비 1분기 영업이익(490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수 시장에서의 라면 판매 실적은 유지되고 있으나, 진라면 등 주요 제품 가격 동결로 인한 수익성 악화와 간편식 시장의 경쟁 심화가 발목을 잡고 있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 국민청원에도 줄지 않는 공매도… 外人·기관만 ‘대박’

거래금액 한 달 새 30% 껑충

코스피 8.4%·코스닥 4.5% ↓

개인투자자 피해 규모 커져

정치·금융권, 대책 마련 분주

코로나19 여파로 증시 급락세가 이어지면서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투자자들의 피해 규모도 커지면서 금융당국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한 달간 공매도 거래금액이 29.99%(코스피)

25.33%, 코스닥 50.4%) 급증했다. 특히 공매도 투자자는 외인과 기관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거래대금은 코스피시장에서 각각 32.98%, 66.71%로 과반 이상을 차지했다. 코스닥시장에서도 72.97%, 24.09%로 압도적이었다. 개인은 0.31%. 0.87%에 불과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서 판 뒤 나중에 주가가 떨어지면 쌍값에 사서 되갚아 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이다.

한 달간 코스피지수와 코스닥지수는 각각 8.42%, 4.45% 하락하면서 외인과

기관을 주축으로 한 공매도 세력도 막대한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한 개인투자자는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현재지변 중 하나인 전염병으로 인한 시장의 공포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폐지하는 등 금융시장 안정화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며 “모두가 힘든 상황에서 공매도의 순기능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해당 게시글은 한 달 새 1만7399명의 동의를 받았다.

코스피시장에서 공매도 거래비중 상위 종목(6일 기준)은 한샘(39.48%), 롯데쇼핑 (36.42%), 롯데지주

(30.01%), 오뚜기(29.92%), 롯데하이마트(28.02%), 오리온(27.89%) 등 유

통업 종목이 두드러졌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엔케이맥스(29.69%), 메디톡스(21.20%), 메디포스트(17.62%) 등 바

이오 기업이 많았다.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정치권과 금융권도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지난달 28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위원회에 ‘한시적 공매도 금지 검토’를 요구했다”며 “앞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발생 때 시장불안 확산을 막기 위해 한시적 공매도 조치를 시행했다”고 전했다.

금융권도 홍콩거래소를 모델로 공매도 가능 종목을 일정 기준에 따라 지정하는 ‘공매도 가능 종목 지정’ 제도를 검토 중이다.

홍콩의 경우 시가총액이 약 4700억 원 이상이면서 12개월 회전율이 60% 이상인 종목 등을 공매도 가능 종목으로 지정해 허용하고 있다. 시장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논의하고 있는 상태로 구체적인 확정 시기는 알 수 없다”며 “금융위와 한국거래소와 여러 각도로 합의 중”이라고 말했다.

윤기쁨 기자 modest12@

## 코로나 공포에 러시아·브라질 펀드 수익률 ‘뚝’

철광석 등 원자재 수출 감소 우려  
연초 후 펀드 10개 평균 수익률  
브라질 -16.3%·러시아 -11.3%

코로나19 확산으로 글로벌 증시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신흥국 시장 대표주자인 ‘러·브(러시아·브라질)’ 펀드 수익률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두 국가의 반등 시점이 엇갈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장 추이를 면밀히 살필 것을 조언하고 있다.

8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연초 이후 브라질 관련 펀드 10개의 평균 수익률은 전일 기준 -16.30%, 러시아에 투자하는 펀드 10개의 평균 수익률은 -11.32%를 각각 기록했다. 같은 기간 국내 주식형 펀드(-6.28%)나 북미 펀드(-4.55%)와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공장이 멈추는 등 세계 경기가 둔화할 것이란 전망이 커지면서 브라질(철광석), 러시아(원유) 등 원자재 수출 형 국가들에 대한 우려가 커진 영향이다.

브라질 펀드 중 ‘미래에셋브라질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 C5’ 클래스의 연초 이후 수익률은 -18.46%로 손실이 가장 커졌다. 또 ‘미래에셋인덱스로브라질증권자투자신탁 C-e(-16.70%)’, ‘신한BNPP브라질증권자투자신탁(H) C-e(-16.56%)’, ‘KB브라질증권자투자신탁 C(-15.16%)’ 등도 수익률이 낮았다.



러시아 펀드도 부진에 빠졌다. 특히 ‘미래에셋인덱스로러시아증권자투자신탁 C-e(-14.18%)’가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다. 이어 키움러시아이스플로러증권자투자신탁 C3(-11.13%)’, ‘한화러시아증권자투자신탁 C(-10.80%)’ 등이 두 자릿수 손실을 냈다. 상장지수펀드(ETF)인 ‘KINDEX 러시아 MSCI’ 수익률도 -13.17%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두 국가의 시장 반등 가능성에 대해 엇갈린 전망을 내놓고 있다. 브라질의 경우 해외화 가치가 급락하는 등 경제 전반이 어려워 회복에 시간이 걸리는 반면, 러시아 증시는 기초 체력이 반복되는 만큼 상대적으로 반등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이재선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러시아의 경우 재정 건전성이 탄탄해 유가가 급락했지만 재정수지는 크게 악화하지 않았

다”며 “또 반기 배당을 실시하는 시장 특성상 배당 전 1~2개월간 지수가 우상향 곡선을 그리는 등 계절적 요인도 반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브라질은 통화적인 측면에서 최근 혜알화 하방 압력이 커던 상황’이라며 “환차익 측면에서 외국인에게 어필할 수 있는 매력이 낮아진 셈”이라고 지적했다. 브라질 혜알화·달러 환율의 경우 지난달 26일 장중 4.51혜알까지 급등하는 등 최근 역대 최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러시아를 위시한 신흥국 시장 반들은 4월이나 노려볼 수 있을 전망이다. 이 연구원은 “신흥국 증시도 결국 글로벌 추이를 반영할 수밖에 없다”며 “전 세계 증시가 다소 주춤한 만큼 시장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다원 기자 leedw@

## 90억 현금배당·30억 규모 자사주 매입

### KTB투자증권 ‘주주친화 경영’ 시동

KTB투자증권이 보통주 현금배당 및 자사주 매입을 통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주주친화 경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또 상환전환우선주(RCPS) 일부도 상환할 예정이다.

KTB투자증권은 6일 이사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결의했다.

현금배당의 경우 보통주 1주당 150원을 배당한다. 시가배당률은 6.3%다. 배당금 총액은 90억 원, 배당기준일은 지난해 12월 31일이다.

26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고할 수 있도록 주주 친화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RCPS 상환 대상은 2종 RCPS의 원금과 누적 배당금으로 총 544억 원 규모다. 전체 발행액 1000억 원 대비 33.3%에 해당하는 규모로 상환한 만큼 잔여 배당 부담이 감소돼 회사의 재무 리스크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KTB투자증권은 이를 통해 재무구조 개선과 증권 수익률 다양화를 성공적으로 이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2016년 취임한 이병철 부회장은 중심으로 이런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해에는 연결기준 당기순이익 502억 원을 잠정 달성하며 증권사 전환 이후 최대 실적을 내기도 했다.

이다원 기자 leedw@

## 상장 철회·홍행 실패 잇따라 IPO시장 얼어붙나

‘코로나19’ 여파 시장 침체 기조  
투심 악화되며 청약 경쟁률 ‘뚝’  
상반기 IPO시장 규모 대폭 줄 듯

히 평가받기 어려운 측면을 고려해 잔여 일정을 취소한다”고 말했다.

투자 심리가 급속히 악화되면서 수요예측과 일반청약 과정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적표를 받아든 기업도 속출했다. OLED 스마트폰용 FPCA(연성인쇄회로조립) 제조업체 엔피디는 지난달 25~26일 수요예측 결과 공모 벤드 하단인 5400원으로 공모가를 확정했고, 일반청약 경쟁률도 32.65대 1로 마무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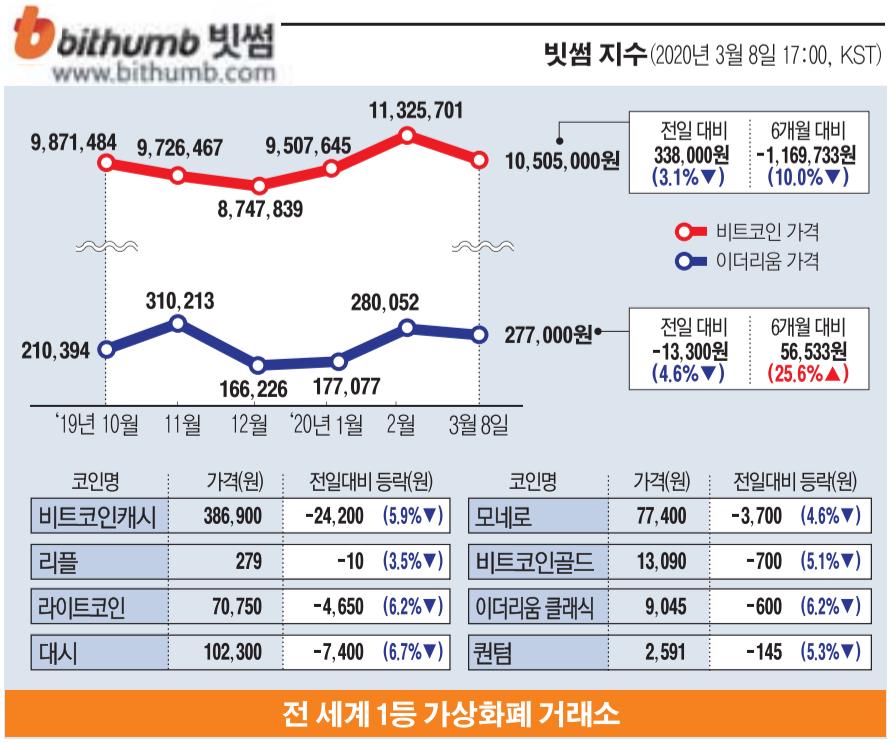
자동차 및 스마트폰용 3D커버글라스를 만드는 제이앤팩씨도 일반청약 경쟁률이 3.48대 1에 그쳤다. 코로나19 국내 확산세가 거세지기 직전인 2월 초중순 상장을 진행한 다른 기업(레몬, 서남 등)들의 일반청약 경쟁률이 800대 1을 넘은 것과는 대조되는 모습이다.

이처럼 IPO시장에 대한 투심이 얼어붙은 건 기본적으로 전반적인 시장 침체 기조 때문이다. 공모기업 중 공모가 기준이 되는 피어그룹 주가가 대부분 가시적으로 하락하며 투심을 이끌 유인이 사라졌다.

이소중 SK증권 연구원은 “2월 중순부터 코로나19 확산에 관한 우려감으로 기관투자자와 기자 대상으로 진행되는 기업설명회가 취소되거나 연기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 설명이 부재한 상황에서 기관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수요예측 및 청약에 참여할 가능성 이 낮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공모가 책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최종 공모가 확정을 위한 수요예측을 실시했지만 회사의 가치를 적절히 평가받기 어려운 측면을 고려해 잔여 일정을 취소한다”고 말했다.

노우리 기자 we12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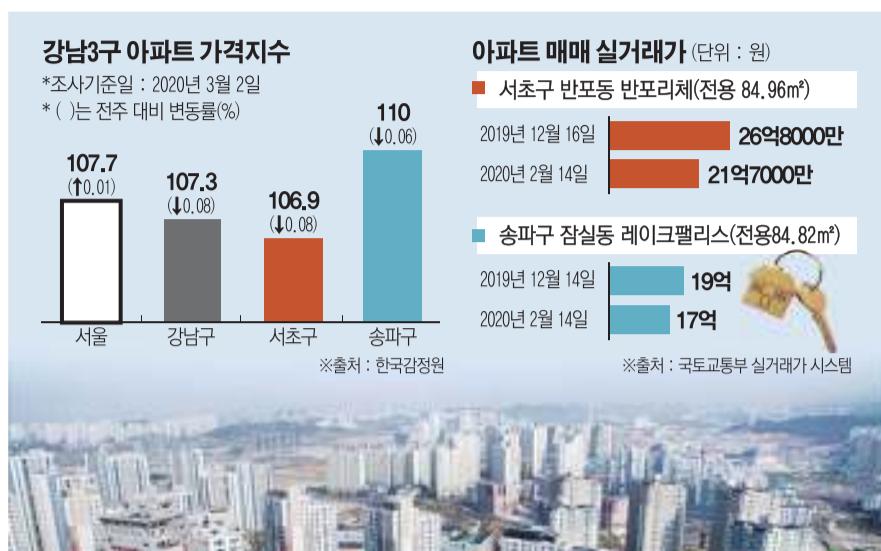
# 잇단 규제에 몸 낮춘 강남 아파트, 두 달 새 3억 ‘뚝’

매수심리 위축에 코로나19 겹쳐  
강남 초고가 중심 하락세 뚜렷  
찔끔 떨어졌던 송파도 낙폭 커져  
4~5월 절세 매물 나올 가능성도  
일각 “공급 부족에 일시적 하락”

정부가 12·16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지 약 3개월이 지난 요즘 서울 강남 아파트 값 하락세가 심상치 않다. 거래가 크게 줄어든 가운데 호가도 지난해 말보다 수억 원 가량 떨어진 곳이 많다. 집값 하락세는 강남권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8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3월 첫째 주(2일 기준) 서울 주간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0.01%를 기록했으나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는 0.05% 떨어졌다. 강남구와 서초구가 0.08%씩 하락한 가운데 송파구도 0.06% 내렸다.

실제 강남 초고가 아파트들을 중심으로 가격이 크게 떨어지는 모습이다. 서초구



반포동 반포래미안아이파크 전용면적 112.95㎡형은 작년 11월 30억4000만 원에 거래됐으나 이달 2일엔 25억500만 원에 손바뀜이 이뤄졌다. 지난해 말 23억 5000만 원에 거래됐던 반포동 레미안파스티지 전용 59.89㎡형은 지난달 21억9500만 원에 팔렸다. 두 달 새 1억6000만 원 가량 떨어진 것이다.

그나마 집값 하락폭이 작은 송파구에서

도 잠실동 대단지 아파트를 중심으로 낙폭이 커지고 있다. 잠실동 리센트 전용 84㎡형은 작년 12월 21억 원에 거래됐으나 올해 2월에는 18억5000만 원까지 떨어졌다. 인근 잠실 엘스와 트리지움 아파트도 지난해 말보다 2억~3억 원 가량 호가가 하락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잇단 부동산 대책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설명한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대출 규제에 지난달 21일 실시한 정부 당국의 고강도 실거래 조사가 강남 매매시장을 얼어붙게 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강남 집값 하락세가 지속될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부동산 규제에 따른 매수심리 위축에다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쳐 강남 집값 하락세가 적어도 올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12·16 대책에서 조정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집을 6월 말까지 팔면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기로 한 것과 관련해 4~5월 중 절세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강남구 대치동 J공인 관계자는 “6월 안에 집을 팔아야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한두 달 전에는 매물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강남 지역의 경우 매물 감소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많지 않은 거래라도 집값 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여기에는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이 대폭 상승하는 것도 또 다른 부담이 될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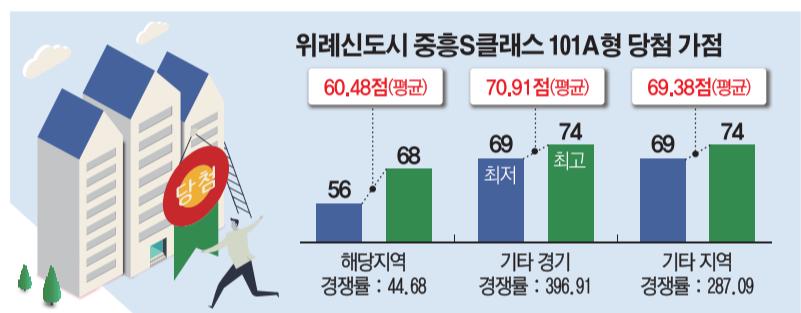
윤지해 부동산114 연구원은 “가격 구간에 따라 현실화율이 최고 80%까지 적용되면서 공시가격이 급등하면, 이와 연동해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등이 올라 주택 소유자의 부담이 커지게 된다”며 “이는 고가 아파트 매수심리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에선 풍부한 시중 유동성 자금과 주택 공급 부족 때문에 강남 집값 하락세가 오래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적지 않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부동산 외 대체 투자처가 없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도 높아 강남 집값은 언제든 반등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넘치는 시중 자금과 함께 올 들어 전셋값 상승도 매매가격의 하방경직성을 유지하는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강남 집값 상승을 자극할 요인이 여전히 많다는 것이다.

권 교수도 “강남 주택에 대한 수요가 많지만 주택 수급 상황은 여전히 원활하지 않다”며 “일시적인 가격 조정은 있을 수 있으나 추세적인 하락세를 접지하는 것은 무리”고 말했다.

문선영 기자 moon@



## ‘코로나19’도 못 꺾은 청약 열기

시세차익 ‘수억’ 위례 중흥S클래스 고가점자 몰려  
대구 ‘청라 힐스자이’ 433대 1 최고 경쟁률 기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무서운 확산세도 내 집 마련에 대한 꿈을 꺾진 못하고 있다.

8일 한국감정원 정약홍에 따르면 위례신도시에서 최근 분양한 ‘위례신도시 중흥S클래스’ 아파트에서 청약 경쟁이 가장 치열했던 전용 101㎡A형의 1순위 해당지역 평균 당첨가점은 60.48점이었다. 최저점은 56점, 최고점은 68점이다. 이 면적의 1순위 기타 경기지역 평균 당첨가점은 해당지역 보다 10점 높은 70.91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1순위 기타지역(69.38점) 평균 당첨가점 역시 70점에 육박했다.

74점짜리 청약통장이 101㎡A·B에서 나왔고, 전용 130㎡ 기타지역에 선 가점 만점(84점)에서 겨우 5점 부족한 79점 고가점자가 등장했다.

위례신도시 중흥S클래스는 공급 물량이 모두 대형이어서 총 분양 물량(426가구) 중 절반은 주점제로 당첨자를 가졌다. 가점이 낮은 청약자들도 당첨 기회를 노릴 수 있는 기회였던 셈이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60점 을 넘는 고가점들이 대거 몰렸다.

전문가들은 이 단지의 전매 제한이 무려 10년인데도 분양가가 시세보다 낮은 데다 위례신도시 막바지 민간 분양 단지라는 점이 장롱 속 청약통장을 꺼내게 한 배경으로 보고 있다. 위례신도시 중흥S클래스는 평균 분양가가 3.3㎡당 1960만 원으로 인근 아파트 시세보다 수억 원이 낮다. 위례신도시에서 남은 민간 분양 단지는 올해 상

반기에도 나오는 우미건설의 ‘위례신도시 우미린2차’(420가구)뿐이다. 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본격 시행되면 청약가점이 더 높은 수요자들이 ‘로또 분양’을 기대하고 대거 청약에 뛰어들 것이라는 우려 역시 청약자들의 조바심을 자극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대구에선 ‘청라 힐스자이’가 최고 433대 1의 경쟁률로 전 주택형이 1순위에서 마감됐다. 394가구 모집에 무려 5만5710건이 몰려 141.40대 1의 평균 경쟁률을 기록했다. 코로나19로 대구 분양시장이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는 당초 전문가들의 예상을 뒤엎은 결과다.

경기도 과천 지식정보타운 첫 분양 단지인 ‘과천 제이드 자이’ 역시 평균 193.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달 청약을 실시한 경기도 수원 ‘매교역 푸르지오 SK뷰’는 1순위 청약에 서 수원 최다 청약자(15만6505명) 기록을 쓴 데 이어 가점 84점 만점자도 등장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팀장은 “코로나19 사태에도 규제가 많은 서울·수도권이나 대전·대구 등 광역시는 내부 수요가 위축 탄탄해 무리 없이 분양 흥행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중소도시 분양 단지는 현장 영업이 안 되는 데다 인근 광역도시 수요가 뒷받침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분양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호 기자 sorahosi@

## LH ‘민간 매입약정형 사회주택’ 시범사업 추진

### ‘청년 등 수요자 맞춤 주택 특화’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 비영리법인 등 사회적 경제 주체가 직접 사업을 주도하는 임대주택이 나온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민간 매입약정형 사회주택’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민간 매입약정형 사회주택 사업은 사회적 경제 주체가 사회주택 기획·운영 전반에 참여하는 프로젝트다.

주택 매입을 약정하고 주거·공용 공간을 설계할 때부터 사회적 경제 주체가 참여하기 때문에 수요자 맞춤형 사회주택을 종적으로 매입기로 했다.

공급할 수 있다. 기존에는 LH가 사회주택 시공까지 종괄한 후 운영자로 협동조합 등이 참여했다.

LH는 시범사업을 위해 서류 심사와 협장 사를 해 서울과 경기 북부 등에서 전용 면적 85㎡ 이하 다세대·연립주택이나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을 사들일 계획이다.

심사에선 사회주택 운영계획과 지역사회와의 연계성 등을 평가한다. 특히 ‘도심 비주거시설 활용형’, ‘지자체 연계형’, ‘직능단체 연계형’ 등 테마를 갖춘 주택을 종적으로 매입기로 했다.

사회주택 운영기관 선정 신청서와 매입 약정 신청서는 LH 서울지역본부 사회주택 선도사업 추진단에서 접수받는다. 사회주택 운영기관의 경우, 건설사와 컨소시엄을 이뤄 신청할 수도 있다.

오승식 LH 서울지역본부장은 “민간 매입약정형 사회주택을 청년이나 예술인 등 수요자 맞춤 주택으로 특화할 계획”이라며 “입주민 커뮤니티가 형성되고 입주민 재능 공유를 통해 지역사회까지 활성화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자세한 내용은 LH 청약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종화 기자 pbell@

## 금주의 분양캘린더

이번 주 전국에서 총 6개 단지가 분양 시장에 나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커졌지만 신규 분양시장에선 3400가구가 넘는 물량이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 수원, 인천 견단, 부산 등 주요 지역에서 분양이 예정돼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3월 둘째 주에는

총 3464가구가 청약을 받는다. 주요 단지로는 경기 수원시 오목천동 ‘쌍용더플래티넘 오목천역 1순위’(당해지역)를 비롯해 서울 송파구 잠실동 ‘쌍용 더플래티넘 잠실(오피스텔)’, 부산 북구 덕천동 ‘한화 포레나 부산 덕천’ 등이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

당첨자는 모두 8곳에서 발표한다. 경기도 과천 지식정보타운의 ‘과천 제이드 자이’를 비롯해 대구 중구 남산동 ‘청라 힐스자이’, 강원 속초시 ‘속초2차 아이파크’ 등 역에서 분양이 예정돼 있다.

계약은 모두 10곳에서 치러진다. 경기도 양주시 ‘양주 옥정 유림노르웨이숲’을 비롯해 서울 송파구 잠실동 ‘쌍용더플래티넘 잠실’(오피스텔), 경기도 성남 고등동 ‘성남고등S3’ 등이 계약을 진행한다.

견본주택은 4개 단지에서 문을 연다. 인천 부평구 심정동 ‘힐스테이트 부평’, 인천 연수구 송도동 ‘힐스테이트 송도더스카이’ 등이 개관을 앞두고 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견본주택 개관이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날짜	구분	시	구시군	읍면동	아파트명	발표	경기	김포시	통진읍	김포마송A3(국민임대)
3/9 (월)	계약	경기	성남시	고등동	성남고등S3(공공분양)(~3/11)	3/11 (수)	강원	속초시	조양동	속초2차 아이파크
			안성시	아양동	안성아양A2-2(국민임대)(~3/13)		전남	영광군	영광읍	영광금호어울림리더스
			의왕시	오전동	의왕오전동아루미체 (~3/11)		경기	화성시	산척동	화성동탄2A77-2(영구임대)(~3/17)
		강원	평창군	봉평면	평창엘리엇 (~3/11)		전북	진안군	진안읍	진안에코르(공공임대)(~3/13)
3/10 (화)	접수	경기	부산	삼례읍	완주삼봉A2신한희망타운(공공분양)(~3/11)	3/12 (목)	부산	북구	덕천동	한화포레나부산덕천 2순위
			수원시	오목천동	쌍용더플래티넘 오목천역 1순위(당해지역)		부산	서울	송파구	잠실동 쌍용더플래티넘 잠실 ♣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대성베르힐 1순위		부산	서울	송파구	잠실동 쌍용더플래티넘 잠실 ♣
		전남	고흥군	고흥읍	고흥승원팰리체더파스트 1순위		부평구	인천	연수구	힐스테이트 송도더스카이
3/11 (수)	계약	충남	천안시	청당동	천안청당서희스타힐스 1순위	3/13 (금)	부산	해		

# 분쟁 고지 없이 지분 판 서부발전 배상 위기

법원 “GS에너지에 22억 지급”  
진술·보증 위반… 60% 책임 인정

한국서부발전이 공사비 관련 분쟁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알리지 않고 발전소 운영사의 지분을 팔았다가 수십억 원의 배상 책임을 질 가능성이 커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재판장 김인택 부장판사)는 최근 GS에너지가 서부발전을 상대로 “47억 3600만 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22억 1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양측은 이 판결에 불복해 모두 항소했다.

서부발전은 2011년 6월 동두천 복합화력발전 공동개발 사업 주진을 위해 삼성물산, 현대산업개발과 공동 출자해 동두천드림파워를 설립했다. 이후 동두천드림파워는 삼성물산, 현대산업개발이 구성한 컨소시엄과 1조 4447억 원 규모의 동두천복합화력발전소 공사 도급 계약을 맺었다.

GS에너지는 2014년 7월 동두천드림파워의 보통주 발행주식 10%를 서부발전으로부터 470억 원에 매수했다.

이후 삼성물산,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은 2015년 11월 공사 지연에 따른 비용 증가 등을 이유로 동두천드림파워를 상대로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을 했다.

당시 컨소시엄은 △공사부지 인도 지연 △가스 인입 지연 △주민 민원으로 인한 공사지연 등으로 추가 공사비용이 들었다며 1000억 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2016년 이들의 주장 일부를 받아들여 “동두천드림파워가 삼성물산에 280억 원, 현대산업개발에 125억 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이에 GS에너지는 “동두천드림파워가 컨소시엄에 부담하게 된 공사대금, 손해배상 채무 등에 관해 주식양수도 계약에서 정한 진술 및 보증의무를 위반했다”며 “컨소시엄에 지급해야 할 금액에 지분율 10%를 곱한 47억 2565만 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제주의 봄 8일 제주시 조천면 함덕리 서우봉에 유채꽃이 활짝 펴 관광객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뉴스스

정수천 기자 int1000@

서부발전은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일이나 종결일 당시 중재사건이 제기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맞섰다.

그러나 재판부는 “인수합병(M&A) 계약에서 진술 및 보증 조항을 둔 목적은 계약 종결과 이행 이후 다른 사실이 발견돼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배상하게 해 불확실한 상황에 관한 경제적 위험을 배분하고, 사후에 현실화한 손해를 고려해 매매대금을 조정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부발전은 주식양수도 계약 당시 부지 인도 및 인허가 지연, 가스 인입 지연에 대해 분쟁이 제기될 우려에 관한 진술 및 보증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자산 가치에만 중점을 두고 손해 전부에 관한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형평에 부합하지 않고, GS에너지가 발전소에 자사의 제품을 인정적으로 공급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손해배상책임을 60%로 제한했다. 김종용 기자 deep@

오후 5시에 제공하는 **유료정보서비스**  
이 기사는 channel **FIVE**에 게재됐습니다

## 불법 된 ‘타다’… 헌법소원 제기 가능성

### 여객운수법 개정안 기본권 침해 다툼 여지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운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남은 사법 절차에 관심이 쏠린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 통과가 2심을 앞둔 이재웅 쏘카 대표, 받지 옥 VCNC 대표 등의 혐의 재판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의 여지는 남아있다.

고민석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형사 재판의 유무죄는 행위 시의 법률로 정해야 한다”면서 “따라서 (이번) 운수사업법 개정안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 박 대표와 두 법인은 2018년 10월~2019년 10월까지 타다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11인승 승합

차로 승객을 운송한 혐의(여객운수법 위반)로 기소됐다.

그러나 2심 재판부가 타다 자체를 유죄로 판단할 경우 VCNC의 서비스 중단은 양형에 유리하게 고려될 수도 있다. 여객운수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자 타다는 “입법기관의 판단에 따라 조만간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객운수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 가능성도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에 따르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청구 대상에는 ‘입법부의 법률’이 포함된다. 이

김종용 기자 deep@



당신의 소중한 파일을 노리는  
**랜섬웨어**



**하우리, 바이로봇으로 차단하세요!**

수년간 축적된 소중한 데이터를 한 순간에 임호화 시켜버리는 랜섬웨어.

대한민국 대표백신 바이로봇 솔루션으로 랜섬웨어를 차단하고 소중한 데이터를 지키세요.

부영 이중근 저서 뒷돈  
김명호 교수 집유 확정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개인 저서 출간을 돋는 과정에서 인쇄 업체로부터 30억 원대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명호 성공회대 석좌교수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교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중국인 이야기’ 저자인 김 교수는 이 회장 부탁으로 부영주택 고문을 맡아 역사서 ‘6·25전쟁 1129일’ 출간을 담당했다. 이 과정에서 출판업자인 친구에게 인쇄계약을 몰아주고 32억 원을 부정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교수는 책의 저작권자로서 인세를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Class가 다른 상위 0.1%를 위한 브랜드

세계 최경량 세계 최고 고반발 장타 설계기술력 - 뱅

Par5 3Shot 합산

**+100<sub>yd</sub>** 더 나간다1st Shot +30~50yd  
세계 최고 고반발 드라이버2nd Shot +30~40yd  
세계 최초의 초고반발 우드3rd Shot +30~40yd  
세계 유일한 고반발 아이언205g~ 44% 더 가벼운  
세계 최경량 기술

최적화 기술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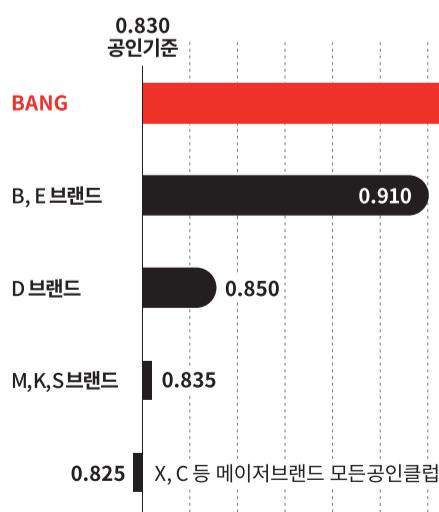
**BIG BANG Light**모든 업체가 뱅골프의 고반발 기술을 따라하고 경량화 기술을 쫓아오지만  
이미 뱅골프는 제3의 신기술-최적화 기술로 골프를 쉽고 편하게 하고 있다PGA 톱 프로처럼 클럽을 만들어 준다면  
나도 프로선수처럼 잘 칠 수 있다프로 골퍼가 잘 치는 것은 뛰어난 스윙 기술과 최적화된 골프채 덕분입니다.  
PGA 톱 프로는 첨단 스윙분석을 거쳐 그 프로에게 최적화된 수십 개의 클럽을 만든 후  
그중에서 가장 감이 좋은 것을 골라 씁니다.스윙기술이 부족해도 세계 최고 고반발 기술 + 세계 최경량 기술이 있는 뱅골프 클럽으로  
PGA 프로처럼 최적화 기술을 적용한 골프채를 만들어준다면 나도 +30yd 더 잘 칠 수 있다

VVIP 고객님께 프로선수와 같은 관리 시스템으로 최적화 기술 적용 및 사용 후 수정 최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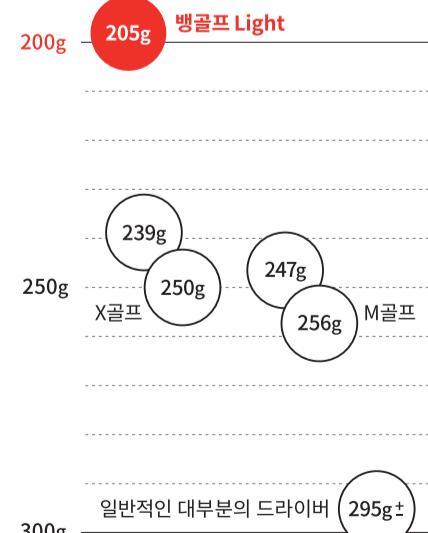


品格

## 고반발 기술 격차



## 경량화 기술 격차



## 최적화 기술 수준 격차

타사	BANG Light
획일적인 몇 가지	999,000 가지
단일 무게 혹은 몇 가지	205g~325g 까지 120 가지
S, SR, R, L 등 몇 가지	XXX~R6 까지 36 가지
S, R 두 가지 안팎	XXX~R6 까지 36 가지
남 351g~395g 여 326g~368g	남 333g 여 312g
대부분 한 가지 길이를 번호별로 잘라서 사용	2~11번 까지 번호별 샤프트
납을 첨가하여 무게조정	120 가지 헤드 무게로 헤드 교환 납을 사용하지 않음
무거워서 치기 불편하다	스윙웨이트가 A8 까지 있어서 누구나 딱 맞는 가벼운 클럽이 있다

# “지속가능성은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의 생존전략”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이은경 실장

인권·노동·환경·반부패 관련 10대 원칙, 다보스포럼도 주목  
소비자·근로자 등 이해관계자를 위한 근본적 책무 공유해야

“유엔글로벌콤팩트(이하 UNGC)는 정부·기업·시민社会의 파트너십을 통해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생태계를 만들겠다.”

이은경 UNGC 한국협회 실장은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오늘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사회공헌을 넘어서 급변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의 생존 전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올해 창립 20주년을 맞이한 UNGC는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등 UNGC의 10대 원칙을 기업이 경영전략에 내재화하도록 권장하는 세계 최대의 자발적 기업 시민 이니셔티브다. 162개국 1만4000여 개 기업 및 회원이 참여하며 한국협회는 국내 260여 개 기업과 기관이 함께한다.

13년간 근무하며 UNGC 실무를 총괄하는 이은경 실장은 젠더, 기후변화, 반부패를 올해 핵심 프로젝트로 소개했다. 올해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도 UNGC의 핵심 가치에 주목하면서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실장은 “Target Gender Equality (TGE)를 기획해 정부, 기업 등과 협업하

면서 기업의 여성 이슈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 론칭을 앞두고 있다”며 “다양성 관점에서 기업의 성 평등 문화 내재화와 시스템 구축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UNGC의 핵심 가치인 기후변화 대응은 오늘날 비즈니스 생존 문제가 됐다. 금융 안정위원회는 기후관련재무정보공개대책 반(TCFD)을 통해 기업의 이사회와 경영진에게도 기후 변화 위험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강조하면서 향후 경영전략에 미치는 영향 등을 밝히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 실장은 “시장에선 금융안정위원회가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의 위임을 받았다는 점을 주목하면서 권고 이상의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해석한다”며 “이런 흐름에 기업이 대응할 수 있도록 글로벌 동향 분석 및 국제 활동 참여 등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3년간 세계 시장이 급변하면서 달라진 투자 운용가치에도 주목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로 알려진 블랙록은 자사 ETF상품의 ESG 공시를 강화해 UNGC의 10대 원칙을 준수하지 않은 기업 비중을 공개하는 등 사회적 투자에 주



Global Compact  
Network Korea



이은경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실장이 4일 서울 종구 UNGC 한국협회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목하고 있다.

이 실장은 “전 세계적으로 반부패 법제화가 강화되고 있으며 ESG 투자에도 중점 관리사항으로 포함되는 추세”라며 “이는 글로벌 투자에서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시그널로 우리 연기금과 투자자도 기업 반부패 이슈 관리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작년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BRT)에서는 기존 인식을 깨 새로운 기업의 정의가 주목받았다. BRT는 ‘이윤과 주주가치 제고’라는 기준 기업의 존재 설정에서 벗

어나 소비자, 근로자 등 모든 이해관계자를 위한 근본적 책무를 공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이 실장은 “우리나라도 경제 규모에 맞게 사회구성원이 힘을 모아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생태계를 조성해야 할 때”라며 “정부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은 내재화하는 등 사회 움직임이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UNGC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면서 함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혜림 기자 wiseforest@



은행연합회, 신임 전무이사에  
이호령 前 IBK신용정보 대표

은행연합회는 8일 신임 전무이사에 이호령 전 IBK신용정보 대표이사를 임명한다고 밝혔다.

이 전무는 1965년생으로 서울대 경제학과와 미국 조지아대 경영대학원을 졸업했다. 행정고시 34회로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장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금융선진화국장,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장, 외교부 주중국대사관 공사참사관 등을 역임했다. 임기는 2년이며 이후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정용욱 기자 dragon@

크래프톤, 차기 대표이사에  
김창한 펩지주식회사 대표 내정



(주)크래프톤이 차기 대표이사로 김창한 펩지주식회사 대표를 내정했다. 크래프톤은 이후 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를 거쳐 대표이사 선임에 들어갈 계획이다.

김 대표는 선임 절차를 거친 후, 김 대표는 게임 연합 크래프톤의 일원인 크래프톤과 펩지주식회사의 대표를 겸한다. 김 대표는 2000년부터 게임 스튜디오에서 개발, 기획, 기술 업무를 담당하며 경력을 쌓았다. 2015년 블루홀지노게임즈(전 지노게임즈)에서 CTO 겸 개발 프로듀서를 역임하고, 30여 명으로 구성된 소규모 팀과 함께 배틀로얄 게임 장르의 글로벌 흥행을 이끈 ‘플레이어언노운스 배틀그라운드’를 탄생시켰다.

조성준 기자 tiatio@

한국보다 한 달 빨랐던 대만 ‘마스크 대란’ 해법은

## 인터넷 창업가 출신 탕평 장관 작품

약국 재고 파악 ‘마스크 지도’ 제작  
건보공단서 실명제 프로그램 개발



있는 마스크 지도를 제작하고 마스크를 실명으로 구매할 수 있게 하는데 힘썼다.

대만 EBC 방송은 건강보험서(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보팀 50여 명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탕장관 측과 사전논의를 거쳐 6000여 곳의 건강보험 지정약국에 대한 마스크 실명제 관련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이어 한꺼번에 건강보험서의 서버로 몰려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작동될 수 없을 경우를 고려해 프로그램의 오픈소스를 공개해 원하면 누구든지 이를 이용해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도록 했다. 1주일여 만에 100여 명의 프로그래머가 다수의 마스크 지도를 자체 제작해 인터넷에 공개함으로써 주민들이 쉽게 사용하도록 했다.

방송은 이런 노력이야말로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정부와 민간기업이 뭉쳐 역량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홍석동 기자 hong@

교황, 주일 삼종기도·수요 일반 알현 인터넷 중계로 대체

코로나 확산 방지 직접 소통 자제



프란치스코 교황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일반 신자들과 직접 소통하는 대규모 행사를 영상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교황청은 8일(현지시간) 바티칸 성베드로광장에서 열린 주일 삼종기도를 교황이 직접 참석하는 대신 인터넷 생중계로 진행한 데 이어 11일 수요 일반 알현도 일반 신자의 참석 없이 인터넷 중계 방식으로 열린다고 밝혔다.

이날 주일 삼종기도 행사는 교황이 사도 궁도서관에서 영상을 촬영하고, 신자들은 바티칸 뉴스 웹사이트와 성베드로광장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 등으로 볼 수 있었다. 교황은 통상 매주 일요일 오후 성베드로광장을 굽어보는 사도궁의 집무실 창문을 열고 주일 삼종기도 강론을 진행한다. 이때 수천 명의 관객과 신자가 교황을 보기 위해 광장에 운집한다.

주일 삼종기도와 수요 일반 알현은 교황이 바티칸에서 일반 신자들을 직접 만나는 대표적인 행사로 꼽힌다. 교황청의 이번 결정은 코로나19 전파를 막기 위한 예방적

조치다. 바티칸에서 5일 바이러스 첫 확진자가 나온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부터 심한 감기 증세를 보인 교황은 현재까지 외부 일정을 연기 또는 취소한 채 교황청 인근 관저(산타 마르타의 집)에 머물고 있다. 교황은 1일 일요 삼종기도회에서도 강론 도중 여러 차례 기침을 하는 등 몸 상태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앞서 이탈리아 한 언론은 교황이 지난 주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으며, 결과는 음성이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홍석동 기자 hong@

## 기시판

한국도로학회장에 이승우 교수 선임



한국도로학회는 이승우 강릉원주대 교수를 제12대 학회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1년이다. 1987년 연세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한 이 학회장은 2000년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에서 토목공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2002년부터 강릉원주대 토목공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이경전 교수, 혁신적 인공지능 응용상



경희대는 일반대학원 이경전 교수가 지난달 미국에서 열린 제34회 국제 인공지능 학회(AAAI)에서 ‘혁신적 인공지능 응용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 교수의 출판논문은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수상작 10편 중 최고 평가를 받았다. 이 교수의 국제인공지능학회 수상은 이번이 세 번째다.

‘원조신공’ 김진호, IOC 여성스포츠상



김진호 한국체대 교수 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여성과 스포츠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IOC는 여성의 날을 하루 앞둔 7일(한국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김 교수를 포함한 2020 여성과 스포츠상 수상자 6명을 공개했다. 김 교수는 고교 2학년 때인 1978년 방콕 아시안 게임 개인전 금메달을 시작으로 1983년 로스앤젤레스 세계선수권대회 5관왕, 1984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개인전 동메달,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 3관왕을 차지했다.

## 인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급 전보  
△네트워크정책과장 임정규 △빅데이터진흥과장 양기성

◆행정안전부 ◆국장급 전보 △울산광역시 기획조정실장 안승대

◆농림축산식품부 ◆국장급 전출 △산림청 산림교육원장 양주필 ◆국장급 전보 △농림축산검역본부식물검역부장 안용덕 △”동식물위생연구부장” 김종철

◆산업통상자원부 ◆국장급 승진 △코트라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장 이경호 ◆과장급 전보 △지역경제총괄과장 서기람

◆국토교통부 ◆국장급 승진 △항공안전정책관 방윤석 ◆부이사관 승진 △해외

건설정책과장 박재순 △철도안전정책과장 김인 ◆과장급 전보 △의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토관리사무소장 이재명 △항공교통본부 운영지원과장 김상인 △도시경제과장 이익진

◆해양수산부 ◆국장급 승진 △감사관 이시원 ◆과장급 전보 △해운정책과장 김현태 △국제협력총괄과장 서정호 △어촌양식정책과장 명노현

◆특허청 ◆부이사관 승진 △지역산업재산과장 윤종석 △산업재산조사과장 최대순 △유기화학사과장 이호조 △일반기계심사과장 조영길

◆방위사업청 △기반전력사업지원부장 김종철 ◆KB증권 ◆상무신규선임 △소비자보

호본부장 김국년

◆ABC카드 ◆부문장 승진 △IT부문장 겸 IT개발본부장 이성만(전무) ◆본부장 승진 △IT인프라본부장 박남규(상무) △글로벌본부장 임남훈(상무) △영업2본부장 조용문 △기업서비스본부장 박복이 ◆총괄 및 부문장 전보 △마케팅부문장 이강혁(부사장) △고객서비스부문장 김진철(전무) △경영기획총괄장민(전무) ◆본부장 전보 △커뮤니케이션본부장 김광동(전무) △영업1본부장 이정호(전무) △경영지원본부장 채병철(전무) △디지털본부장 최정윤(상무) △재무본부장 임표(상무) △마케팅본부장 장길동(상무) △경영기획본부장 조현민(상무) △금융플랫폼본부장 박상범(상무) △매입사업본부장 서거정(상무)

## 부음

▲이강식 씨 별세, 이일재(경기여자고등학교 교사)·권재(중외학술복지재단 사무국장 이사대우) 씨 부친상 = 8일,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장례식장 3호실, 빌인 10일 오전 7시, 010-3070-5523

▲김찬복 씨 별세, 김동일(KT 부부장)·성일(KBS 인사운영부장) 씨 부친상, 이수정(KT 근무)·남금주(교보생명 부장) 씨 시부상 = 7일,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빌인 10일 오전 9시, 02-2227-7547

▲김계호 씨 별세, 장은석(서울신문 경제부 기자) 씨 장인상 = 8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 안암병원 장례식장 202호, 빌인 10일, 02-923-4442

곽재원의  
4차 산업혁명곽재원  
전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결단과 실행’의 경영을 끊임없이 실천한 잭 웰치와 같은 경영자의 돌파력을 살리면서 어떻게 폭주를 제어할 것인가. 21세기에 맞는 기업 거버넌스는 무엇일까. 절대적 교과서와 만능경영 수법이 존재하지 않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경영자상은 무엇일까.

1981년부터 20년에 걸쳐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GE)의 회장을 지낸 잭 웰치가 지난주 세상을 떠났다. 사업의 ‘선택과 집중’을 경영의 기치로 내걸고 글로벌 기업들에 큰 영향을 준 웰치 혁명의 가치는 지금도 시들지 않는다.

1981년 당시 죄연소인 45세에 회장에 취임한 그는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의 “세계에서 1위나 2위가 될 수 있는 사업만 하라”는 조언을 받아들여 리스트럭처링(사업 재구축)과 M&A(인수합병)를 추진했다. 여기서 나온 ‘선택과 집중’은 1980년대 이후 기업경영의 키워드가 되었다. 미국 포천지는 1999년에 웰치를 20세기 최고의 경영자로 선정했다. 그가 추진한 ‘강한 사업으로의 특화’ 전략은 경영이 부진한 기업에 지금도 유효하다.

그는 반도체 사업 등을 매각하는 한편 미국 3대 TV 방송국 중 하나인 NBC를 인수했다. 금융사업의 확대를 노려 1990년대에 보험회사와 리스회사를 잇따라 인수했다. 일본에서도 소비자금융인 레이크를 사들이고 파탄한 동방생명보험의 사업을

인수했다.

히타치 제작소는 이 같은 GE의 경영 전략을 보며 반도체와 액정 사업으로부터 멀지게 손을 빼다. 반면 파나소닉은 부진한 TV사업을 계속 붙잡고 있었다. 그 결과 히타치와 파나소닉의 경영실적 격차는 크게 벌어지고 말았다. 이는 기업경영학의 좋은 사례로 꼽힌다.

이 밖에 GE가 앞서 실천했던 경영수법은 ‘제조업의 서비스화’와 ‘매수를 지렛대로 삼은 사업의 글로벌 전개’ 등 수없이 많다. 간부교육에 투자를 아끼지 않았던 것도 웰치 경영의 특징이다.

미국의 경영학자인 게리 하멜은 ‘웰치에 의해 미국 기업의 효율화 혁명이 시작됐다’고 평가한다. 웰치가 GE 개혁의 일환으로 도입한 경영 이론 중 또 하나 유명한 것은 ‘6(식스) 시그마’ 이론이다. 일본 기업들은 2005년 당시 시급한 과제였던 폐쇄적 경영체질 개선을 위해 ‘6 시그마’를 응용했다.

웰치는 성숙한 대기업에서도 경영의 리더십에 따라 고속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

을 보여주었다. 그가 약 20년의 재직 기간 중 주가를 30배로 올린 수완도 ‘20세기 최고의 경영자’라는 명성을 뒷받침해주는 기록이다. 1990년대 말부터 소니, 도시바, 삼성 등이 잭 웰치의 경영이론을 신봉하는 신자(信者)로 등장하기도 했다. 그의 경영 이론은 아직도 아시아 개도국에서 살아있다.

웰치가 GE에 남긴 최악의 유산은 금융사업에 대한 과도한 집중이다. GE 금융사업은 리스크 거래로 윤탁한 현금수입을 몰고 온 GE캐피털이 이끌고 있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때 금융 사업이 어려움에 빠지면서 결국 GE는 파탄 위기에 몰리고 말았다. 그의 후임으로 GE를 이끈 제프리 이멜트는 주가의 장기 하락에 고심했다. 본인의 역량 문제도 커지만 미국에서 기업인 언론의 부정회계 사건을 계기로 시장 감시가 엄중해지면서 GE캐피털은 완전히 힘을 잃게 됐다. 미국 다우공업주 30종 평균이 1896년 창설될 당시에 편입된 GE는 2018년 6월 채용 종목에서 배제된다.

GE는 이멜트, 존 플래너리로 이어진 최고경영자(CEO)들이 경영 성과를 내지 못하자 2018년 처음으로 외부 출신인 로렌스 칼프를 CEO로 영입했다. 생전에 ‘최대의 사업은 후계자 육성’이라고 공언했던 웰치는 결과로 보면 톱 인재 육성에 실패한 셈이다.

지난 1월 말 스위스 세계경제포럼(다보스 회의)에서도 지적되었듯이 20세기 미국에서 주류였던 주주 이익을 최고로 삼던 자본주의의 모습을 이제 근본적으로 고치려는 기운이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카리스마 경영자의 죽음을 계기로 ‘21세기 자본주의’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된다.

‘결단과 실행’의 경영을 끊임없이 실천한 잭 웰치와 같은 경영자의 돌파력을 살리면서 어떻게 폭주를 제어할 것인가. 21세기에 맞는 기업 거버넌스는 무엇일까. 절대적 교과서와 만능경영 수법이 존재하지 않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경영자상은 무엇일까. 잭 웰치를 반면교사로 삼아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새로운 기업 거버넌스와 경영자상을 고민해볼 때다.

이정의  
노동과 법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면서 우리 일상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각종 모임이나 행사가 줄줄이 연기·취소되는가 하면, 결혼식 초대장을 보낸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이를 취소하는 충격이 벌어지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품귀현상을 빚고 있는 마스크 몇 장을 얻기 위해 마트 앞에 줄지어 선 긴 행렬을 보면 마치 반세기 이전으로 돌아간 느낌이다.

내가 일하는 대학도 예외는 아니다. 졸업식과 입학식이 전격적으로 취소된 데 이어 개학도 연기되고 강의마저 원격으로 대체되기에 이르렀다. 지난달 초 학교로부터 졸업식과 입학식이 연기될지도 모른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만 해도 사태가 이렇게 심각하게 전개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 매년 이맘때면 신입생들로 활기가 넘쳐야 할

캠퍸스는 헹하니 비어 읊씨년스럽기 짝이 없고, 학생들의 발길이 끊겨버린 대학 주변 상가는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다.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외식업이나 여행업은 물론 영세 상공인들의 폐업이 속출하고 있고, 대기업조차 구조조정에 착수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투자와 소비심리마저 위축된 나머지 실물경제 대부분이 사실상 패닉상태에 빠져들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1997년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맞먹는 침체가 염습해 오진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한편 코로나19 위기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어려움을 지혜롭게 극복해 나가는 기업도 있다. 위기 대처 능력을 보면 그 기업의 가치와 잠재력을 가늠할 수 있다. 평소 정보통신기술(ICT)을 적극 도입해 재택근무 같은 유연근무제를 잘 운용해온 기업의 경우 다소 느긋한 표정이다. 그러나 이러

한 준비가 부족했던 기업들은 정부의 재정적 지원에 의존하거나 무급휴직 등 소극적 방법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영세한 자영업자의 경우 구조조정으로 부득이한 면도 있다. 그러나 중견기업에서 조차 무급휴직이나 퇴직을 강요하는 것을 볼 때, 우리 기업이 위기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그간 우리는 IMF 외환위기를 비롯하여 메르스 사태를 거쳐 이번 코로나 사태에 이르기까지 수차례 국가적 위기를 경험한 바 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듯이 과거 경험으로부터 배우지 못하는 기업의 장래는 담보되지 않는다. 언제부턴가 우리에게 위기는 일상화되었고,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함에 따라 기업을 둘러싼 고용환경은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다. 낯선 환경에 도전하는 것은 두렵고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일이다. 기업 또한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불합리한 관행과 과감하게 결별해야 한다.

한다.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기업 끊지않게 개인 근로자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 디지털 고용이 보편화될수록 근로방식의 개별화 추세는 더욱 강해질 것이다. 종전에는 기업이 주로 담당해오던 근로자에 대한 커리어 관리도 앞으로는 근로자가 자기 책임하에 스스로 해야만 한다. 따라서 자칫 자기관리에 소홀할 경우에는 궤도를 이탈하여 사회적 낙오자로 전락할 수도 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코로나19 감염 예방 책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와 ‘잠시 멈춤’ 캠페인이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캠페인이 아직은 예방학적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지만, 향후 개인화 및 디지털화가 진행될수록 더욱 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택근무나 화상채팅이란 단어가 아직은 다소 생소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머지않아 우리의 일상이 될 것이다. 사람 냄새 나는 세속적인 삶이 그리워질 날이 의외로 빨리 올 수 있다.

## 이투데이, 말투데이

## ★ 김중업(金重業) 명언

“건축은 인간에의 찬가(讃嘆歌)입니다. 알뜰한 자연 속에 인간의 보다 나은 삶에 바쳐진 또 하나의 자연입니다.”

건축가. 프랑스 문화부 고문 건축가, 미국 로드아일랜드와 하버드 교수로도 크게 활약했다. 그의 설계 작품으로는 ‘서강대 본관’ ‘주한 프랑스대사관’ ‘제주대 본관’ ‘삼일로 별당’ ‘육군박물관’ 등이 있다. 오늘은 그의 생일. 1922~1988.

☆ 고사성어 / 중심소욕(從心所欲)  
‘마음대로 한다’는 뜻. ‘중심’은 70세를 비유하는 말. 논어(論語) 위정편(爲政篇)에 나온다. 공자(孔子)가 “나이 일흔에 마음이 하고자 하는 대로 하여도 법도를 넘어서거나 어긋나지 않았다[七十而從心所欲不踰矩]”고 한 데서 유래한다.

## ☆ 시사상식 / 골디락스 경제

골디락스는 골드(gold·금)와 락(lock·머리카락)의 합성어로 영국 동화 ‘골디락스와 곰 세 마리’에 나오는 금발소녀 이름. 골디락스는 숲속에서 곰이 끓여 놓고 나간 ‘뜨거운 수프’, 차가운 수프, 적당한 수프’ 중 적당한 온도의 수프로 배를 채우고 기뻐한다.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고성장에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 압력이 없는 건실하게 성장하고 있는 이상적 경제 상황을 뜻한다.

## ☆ 우리말 유래 / 엿 먹어라

상대를 골려줄 때 쓰는 속어. ‘엿’은 남사당파가 쓰는 여자 성기를 가리키는 은어. 여성과 성관계를 잘못 맺다가는 변을 당한다는 뜻이다.

## ☆ 유머 / 듣는 것과 보는 것 차이

손수레 뒤를 아들이 힘겹게 밀며 언덕을 오르자 이를 본 두 학생이 거들었다. 뒤의 학생이 “앞에 끄시는 분이 아버지니?” 하고 묻자 “아니”라고 답했다. 앞에 돋든 학생이 “뒤에 있는 아이가 아들인가요?”라고 묻자 “그렇다”고 했다. 뒤의 학생은 둘 관계가 궁금해졌다. 앞에 가서 보니 끄는 이는 아이의 어머니였다.

채집/정리: 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멋있는 삶 연구소장

## 잭 웰치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남긴 것

## 오피니언

1981년부터 20년에 걸쳐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GE)의 회장을 지낸 잭 웰치가 지난주 세상을 떠났다. 사업의 ‘선택과 집중’을 경영의 기치로 내걸고 글로벌 기업들에 큰 영향을 준 웰치 혁명의 가치는 지금도 시들지 않는다.

1981년 당시 죄연소인 45세에 회장에 취임한 그는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의 “세계에서 1위나 2위가 될 수 있는 사업만 하라”는 조언을 받아들여 리스트럭처링(사업 재구축)과 M&A(인수합병)를 추진했다.

여기서 나온 ‘선택과 집중’은 1980년대 이후 기업경영의 키워드가 되었다. 미국 포천지는 1999년에 웰치를 20세기 최고의 경영자로 선정했다. 그가 추진한 ‘강한 사업으로의 특화’ 전략은 경영이 부진한 기업에 지금도 유효하다.

미국의 경영학자인 게리 하멜은 ‘웰치에 의해 미국 기업의 효율화 혁명이 시작됐다’고 평가한다. 웰치가 GE 개혁의 일환으로 도입한 경영 이론 중 또 하나 유명한 것은 ‘6(식스) 시그마’ 이론이다. 일본 기업들은 2005년 당시 시급한 과제였던 폐쇄적 경영체질 개선을 위해 ‘6 시그마’를 응용했다.

웰치는 성숙한 대기업에서도 경영의 리더십에 따라 고속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

을 보여주었다. 그가 약 20년의 재직 기간 중 주가를 30배로 올린 수완도 ‘20세기 최고의 경영자’라는 명성을 뒷받침해주는 기록이다. 1990년대 말부터 소니, 도시바, 삼성 등이 잭 웰치의 경영이론을 신봉하는 신자(信者)로 등장하기도 했다. 그의 경영 이론은 아직도 아시아 개도국에서 살아있다.

웰치가 GE에 남긴 최악의 유산은 금융사업에 대한 과도한 집중이다. GE 금융사업은 리스크 거래로 윤탁한 현금수입을 몰고 온 GE캐피털이 이끌고 있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때 금융 사업이 어려움에 빠지면서 결국 GE는 파탄 위기에 몰리고 말았다.

그의 후임으로 GE를 이끈 제프리 이멜트는 주가의 장기 하락에 고심했다. 본인의 역량 문제도 커지만 미국에서 기업인 언론의 부정회계 사건을 계기로 시장 감시가 엄중해지면서 GE캐피털은 완전히 힘을 잃게 됐다. 미국 다우공업주 30종 평균이 1896년 창설될 당시에 편입된 GE는 2018년 6월 채용 종목에서 배제된다.

## 기자수첩

유충현 정치경제부/iamuziq@



## ‘발상의 전환’과 ‘반칙’ 사이

타다금지법을 둘러싼 논쟁의 핵심은 ‘어떤 기업의 혁신적 사업이 기준의 다른 시장과 충돌할 때 어느 쪽의 손을 들어주어야 하는지’였다. 국회는 ‘기준 시장’의 편을 들었다. 이에 따라 미래 창업자들은 자신들의 구상이 ‘실현 가능한 것인지’ 외에도 기준 시장의 이익을 침해하는지를 함께 살피게 될 가능성이 크다.

논쟁적인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는 과정은 여론의 관심을 끈다. 이렇게 되면 단순한 입법 과정을 넘어선 기반이 생긴다. 그 자체로 사회에 일정한 방향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이번 논쟁이 던진 또 하나의 메시지는

기능을 넣었을 뿐이고, 글로벌 IT기업 아마존 역시 온라인 서점에 불과했다. 세상을 바꾼 ‘콜럼버스의 달걀’은 늘 이런식이었다.

타다금지법의 국회 통과를 두고 우려를 표하는 이들이 많다. 이번 법안의 영향이 해당 기업 한 곳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다. 혁신은 기존의 관행과 질서를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발상의 전환에서 나온다.

하지만 타다가 시도했던 ‘발상의 전환’은 ‘반칙’ 취급을 당했다. “스타트업 창업자들에게 ‘정부와 여당이 마냥 협조적이지 않다’는 인상을 주게 됐다. 그간 ‘혁신 성장’을 강조했던 효과도 반감될 수밖에 없다. 선거철만 아니었다면 통과가 어려웠을 것이다.” 한 여당 의원이 사석에서 한 말이다.

하지만 타다가 시도했던 ‘발상의 전환’은 ‘반칙’ 취급을 당했다. “스타트업 창업자들에게 ‘정부와 여당이 마냥 협조적이지 않다’는 인상을 주게 됐다. 그간 ‘혁신 성장’을 강조했던 효과도 반감될 수밖에 없다. 선거철만 아니었다면 통과가 어려웠을 것이다.” 한 여당 의원이 사석에서 한 말이다.

## ‘이투데이’

社是  
正道言論  
經濟報國  
未來指向

발행·인쇄인 김상우

편집인 김상철

논설실장 추창근

편집국장 김덕현

주소 06900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62길 1

대표전화 (02)799-2600

팩스 (02)784-1003

광고문의 (02)799-2601 / 2602

구독·배달 (02)799-2684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2010년 10월 4일 창간&lt;일간&gt;

홈페이지 www.ettoday.co.kr

# 코로나와 건설경기 부양

## 데스크칼럼

조 철 현

부국장 겸 부동산부장



올해 1월만 해도 건설경기 바닥론이 솔솔 흘러나왔다. 건설 수주액 지표가 주된 근거였다. 건설 투자 선행지표인 건설 수주액은 작년 9월 반등하기 시작해 10월 전년 동기 누적액을 추월하더니 12월에는 166조 원의 수주고를 올리며 2016년의 역대 최대 기록(164조 8000억 원)을 갈아치웠다. 이 덕분에 작년 4분기 건설 투자는 7%의 성장률을 보였다. 2001년 3분기(8.6%) 이후 최고치였다. 사회간접 자본(SOC) 확충 등 정부 주도의 토목건설 투자가 확대된 결과다.



세상을 바꾸는 금융

# 국민이 있기에 내일은 희망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국민의 희망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밤낮으로 일하며 몸을 아끼지 않는 의료인  
위험을 무릅쓰고 달려가는 119 구급대원  
따뜻한 마음으로 이웃을 위해 일하는 자원봉사자들  
서로를 위해 예방수칙을 지키고 계신 한 분 한 분 모두

우리 국민은 어려운 시기에 항상 하나되어  
위기를 극복한 저력이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국민 여러분이 있기에  
대한민국의 내일은 희망입니다

대한민국을 밝히는 희망의 빛이  
다시 모두를 웃게 할 수 있도록  
KB금융그룹이  
국민의 희망 행렬에  
함께하겠습니다



 KB 금융그룹